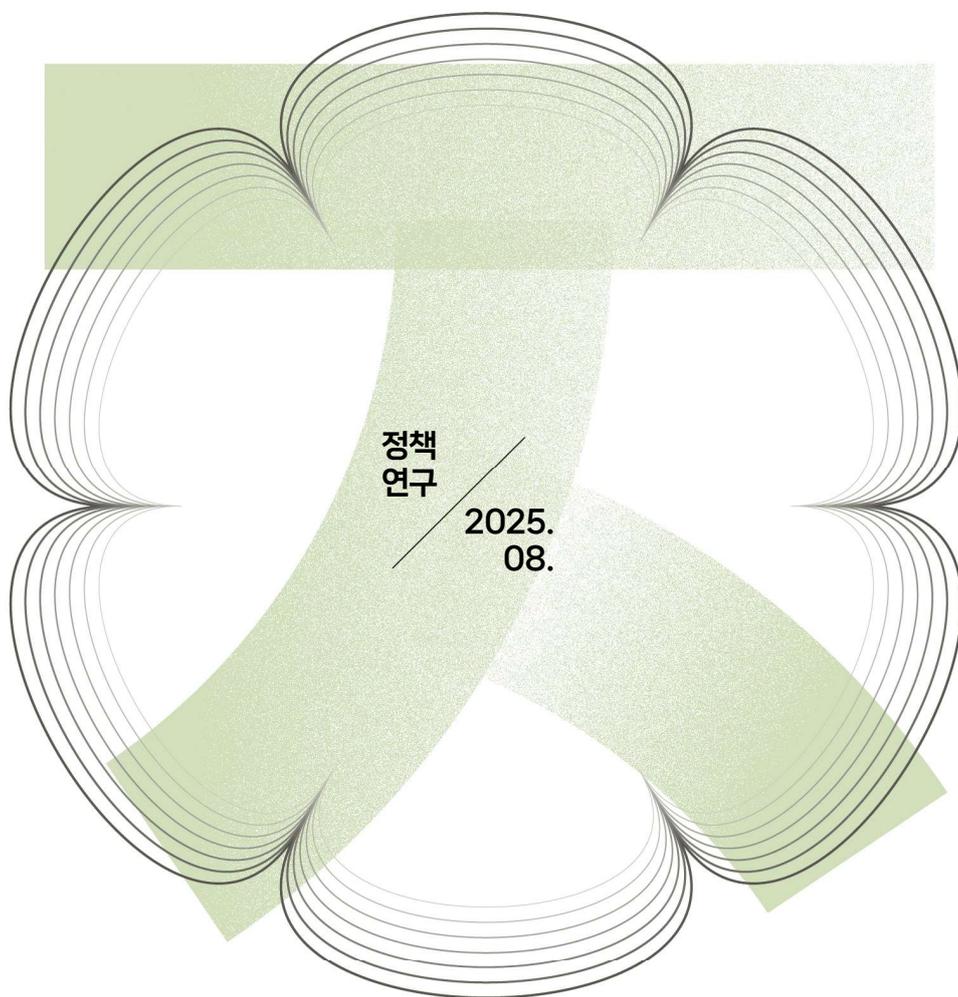


● ● ● 정책연구 202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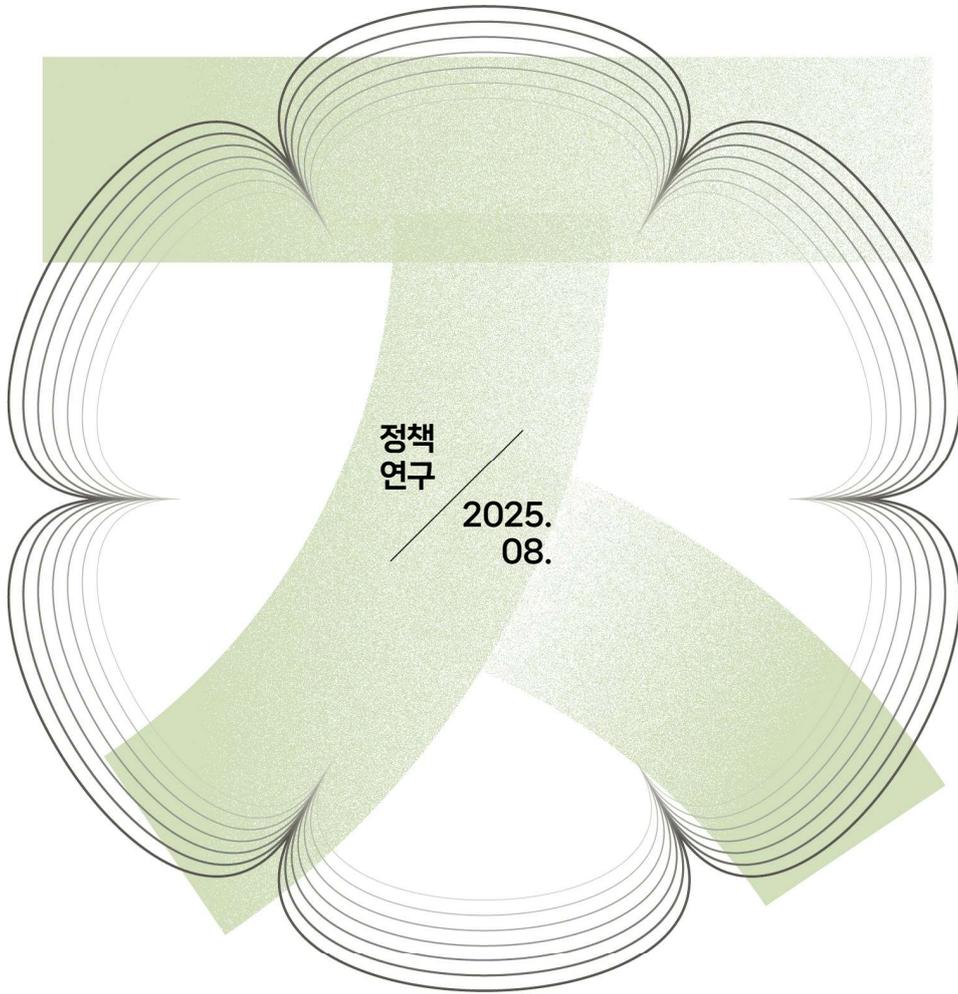
김해시 대청공원·중앙광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전현진



김해시 대청공원·중앙광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전현진



연구진 profile

전현진

- 연구책임
 - 도시교통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요약 및 정책함의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김해시 장유2동에 위치한 대청공원은 산림형 녹지와 생활체육시설이 공존하는 근린공원으로, 도서관·문화시설·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활성도가 낮은 실정임
- 또한 중앙광장은 도심 광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여 활용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공간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물리적 연결성 강화, 기능 재구성,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기함

▣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 기억을 품고, 세대가 연결되며, 일상이 머무는 “대청문화공원”

전략 1. 보행자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	전략 2. 복합문화공원 조성	전략 3. 일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앙광장 리모델링	복합문화공원 조성	대청ON 프로그램 운영
녹지 연결로 조성	숲체험·휴양 공간 조성	보훈ON 프로그램 운영
		숲에ON 프로그램 운영

▣ 정책제언

- 단계별 실천 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 구조 마련
- 생활권 단위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공원 인지도 제고 및 상권 연계 활성화 전략 필요
- 시민의 삶과 함께 변화하는 유기적 공원 관리 체계 구축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II	도시공원의 개념 및 정책 방향	6
1.	도시공원의 개념과 기능	6
2.	도시공원 관련 법제 및 정책 방향	17
III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25
1.	대상지 현황분석	25
2.	시민 인식조사	41
3.	사례조사	57
4.	종합분석	69
IV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이용 활성화 방안	74
1.	기본구상	74
2.	공간구상	77
3.	전략별 추진 계획	79
4.	추진로드맵	89
V	결론 및 제언	94
1.	결론	94
2.	정책적 제언	97
	참고문헌	99
	부록	101

I 서론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도시공원의 역할 변화 및 중요성 증가

- 최근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민의 여가, 건강,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원은 일상의 휴식처이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으로 주목받았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률과 기대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음
- 도시공원은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주민 간 교류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작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도시공원 정책은 생태환경 기능뿐 아니라 시민 체류와 참여,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대청공원의 낮은 활용도 문제

- 대청공원은 넓은 녹지와 산림형 공원의 특성을 지닌 장유지역의 도시공원 중 하나로, 공원 내에는 풋살장, 농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산림 지역이 조성되어 있음
- 장유도서관 및 중앙광장과 연결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문화·체육·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대형마트 및 상업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음
- 그러나 현재 대청공원은 시설 노후화, 특정 시설 중심의 편중된 이용,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상대적으로 산책 및 운동시설 이용률은 높은 반면,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생활권 이용

자의 유입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공원 내 주요 공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광장과 기능적 연계도 부족하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청공원의 기능을 다변화하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중앙광장과 연계된 공간 활성화 필요성

- 대청공원과 인접한 중앙광장은 야외무대와 선형 광장을 갖춘 도심 내 주요 거점으로, 문화·예술·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활용도가 낮아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이 부족한 채 사실상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음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보행 동선,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원의 역할 강화

-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장유2동 생활권의 상업시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공원 이용의 활성화는 곧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커뮤니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두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운영, 로컬 상권과 연계된 행사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시민 참여형 운영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김해시 장유지역에 위치한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통해, 두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단절된 공원 이용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세대와 생활권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공 공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상권 연계 등 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대청공원의 이용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 대청공원의 현재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시설 노후화, 편중된 기능, 콘텐츠 부족 등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림형 공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이용층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도출함

▣ 중앙광장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략 마련

- 공원과 광장 간 보행 동선 및 기능을 통합하여, 일상적 체류·참여·소통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제시함

▣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유도

- 보행자 중심의 접근 동선 정비, 주차 공간 확보, 휴게시설 보강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여 공원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

- 다양한 체험·문화·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민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활성화 모델을 구축함

2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김해시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76번길 15(대청동 299) 일원



자료: 네이버 지도(검색일: 2025.1.9.) 활용
(그림 1-1)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위치도

□ 내용적 범위

-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의 공간 현황 분석
 - 대청공원의 입지, 시설 구성, 이용 패턴, 물리적 구조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앙광장의 공간 구성, 활용 실태 및 시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여, 두 공간의 특성과 한계를 진단함
- 시민 인식 조사
 -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의 인지도, 만족도,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주요 미방문 사유 및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여 공간 재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공간 연계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 구상안을 도출하고 보행 동선 개선, 콘텐츠 확충, 시민참여 기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함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공간 구조, 시설 현황, 물리적 연결성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함
 - 문헌조사: 기존 행정계획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의 입지 특성, 시설별 기능,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제도적 여건을 정리함
 - 현장조사: 대상지 전역을 직접 답사하며 시설 배치, 보행 동선, 접근성, 이용자 유형 등을 파악함. 주요 시설의 물리적 상태, 이용 빈도, 공간 간 연결성, 안전·편의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함

▣ 설문조사

- 공간 재구성 방향 설정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를 시행함. 조사 문항은 응답자 일반 현황, 공원 이용 형태,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의 인지도와 만족도, 주요 미방문 사유,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함

▣ 사례조사

- 공원 및 광장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여 대상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특히 공간별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 기능 재구성과 프로그램 다변화 방안을 분석함

▣ 종합 분석 및 전략 도출

- 현황 분석, 시민 인식 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결과를 상호 비교·검토하여 SWOT 분석을 통해 종합 분석을 수행함
- ‘공간구상(물리적 개선)’과 ‘프로그램 구상(콘텐츠 확충)’의 이중 구조로 전략을 체계화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문화적 활용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II 도시공원의 개념 및 정책 방향

1 | 도시공원의 개념과 기능

- 대청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도시공원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시민의 휴식·여가·생태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임
- 반면, 중앙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광장시설'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조성 및 활용 측면에서는 공공 행사, 커뮤니티 활동, 집회 등 다양한 시민 활동이 이루어지는 개방형 공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두 공간은 법적 지위와 조성 목적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건축물이 건폐되지 않은 공공의 개방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라는 개념적 범주에 포함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장에서는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을 검토하고, 도시공원과 광장의 법적 정의와 기능적 특성을 검토함

1)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과 역할

□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

-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는 도시공간 중에서 건물 및 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비건폐지(open, unbuilt) 상태로 유지되는 개방형 공간을 의미함
- 국토교통부의 「도시이음 용어사전」에서는 “오픈 스페이스를 공원·녹지·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호소(湖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하는 광의의 녹지”라고 정의하고 있음
- 즉, 오픈 스페이스는 단순히 녹지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휴식, 여가, 문화, 커뮤니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개방 공간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

-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를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특정 용도와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정의되며, 도시민들의 휴식,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함
 - 공원 및 녹지 등 도시주거지의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 거주자의 활동성에 기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로 주거지의 이미지와 적주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순한 옥외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님(김묘정, 2015)
 -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며,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박영석·배정환, 2024)
- 이러한 공간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님
 - 삶의 질 향상: 오픈 스페이스는 시민들이 자연을 접하고, 여가를 즐기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 도시 정체성 및 문화적 의미 강화: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문화·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됨
 - 사회적 활동 촉진: 오픈 스페이스는 단순한 녹지를 넘어 시민 간 상호작용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도시 활력 제공: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의 쾌적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통해 도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음

□ 오픈 스페이스의 유형

- 우리나라에서는 오픈 스페이스의 유형을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 광장, 운동장, 저수지 등과 지역 지구개념으로서의 녹지와 풍치지구 등으로 나누고 있음(조예진·최정아, 2017)

- 이러한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대체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며, 일상 속에서 여가·문화·운동·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함
- 대표적인 예로는 도시공원, 광장, 보행로, 수변공간, 마을 쉼터 등이 있으며, 그 활용도는 도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점차 복잡화되고 있음
- 본 연구 대상지인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모두 시민의 이용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오픈 스페이스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2) 도시공원 및 광장의 개념 및 분류

(1) 시설의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항에서는 기반시설을 분류하고 있음. 기반시설은 도시 및 지역에 필요한 각종 공공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들을 통칭함
- 위 법률의 제2조(정의) 제6항에 따르면, 광장·공원·녹지 등은 "공간시설"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로서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여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즉,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간적 기반시설로 볼 수 있음

<표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및 광장시설의 분류

구분	내용
제2조 제6항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4호

(2) 도시공원의 개념과 유형

- 도시공원은 도시 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 휴양,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도시공원은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됨
- 동법 제15조에는 도시공원을 세분화하여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국가도시공원: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도시공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되는 대규모 공원임
 - 생활권공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됨
 - 주제공원: 특정 목적과 테마를 가지고 조성된 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
- 주제공원 중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경우 김해시는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반려동물공원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대청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상 명칭은 ‘계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의 유형 중 ‘근린공원’에 해당함

<표 2-2> 도시공원의 정의

구분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표 2-2>의 계속

구분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조례로 정하는 공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	생태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놀이공원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반려동물공원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62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는 도시공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공원시설에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화단, 분수, 조각 등), 휴양시설(휴게소, 긴 의자 등), 유희시설(그네, 미끄럼틀 등), 운동시설(테니스장, 수영장 등), 교양시설(식물원,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공원관리시설(관리사무소, 울타리 등), 도시농업시설, 재난관리시설(비상용 화장실, 내진 저수조 등) 등이 포함됨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 기준과 함께 공원 내 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면적 비율(시설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인 대청공원의 경우 시설율은 40% 이하로 제한됨

<표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

구분	내용
제2조 제4항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표 2-4> 도시공원의 설치, 규모 및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시설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0% 이하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m 이하	1,500㎡ 이상	60% 이하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0,000㎡ 이상	40% 이하
(2) 도보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m 이하	30,000㎡ 이상	40% 이하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 이상	40% 이하
(4) 광역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0㎡ 이상	-

<표 2-4>의 계속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시설율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40% 이하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 이상	20% 이하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 이상	50% 이하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000㎡ 이상	40% 이하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5호

(3) 광장의 분류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 제1절 광장에서는 광장의 세분류, 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중앙광장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된 구간 위에, 지하차도 상부를 덮어 조성된 공간임. 법적으로는 ‘광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부 구조물 위에 보행·집회·문화행사 등 광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표 2-5> 광장의 구분 및 결정기준

구분		결정기준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전 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주요 시설 광장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일반광장	중심대 광장	(1)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근린 광장	(1) 주민의 사고,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2)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경관 광장	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건축물 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3) 도시공원의 가치

- 도시공원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으로 평가됨. Space(2009)에서는 도시공원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음
-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도시공원이 존재함으로써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의미함
 -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 공원이 인접한 주거지 및 상업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공원의 경관적, 환경적 가치가 시장에서 반영되기 때문임
 - 이러한 부동산 가치 상승 현상은 기업 및 상업 공간에도 나타남. 공원 근처의 상업용 부동산은 더 높은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지역경제 및 민간 투자 유치
 - 공원 방문객이 증가하면 인근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됨. 공원 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공원을 활용한 행사나 마켓 등이 열린다면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공원이 잘 관리된 지역은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우수한 환경적 요소를 갖춘 지역은 기업의 본사 및 사무 공간 입지로 선호되며, 공원과 녹지 공간이 있는 도시에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적 이점
 - 지방정부는 공원의 물리적 자산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원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고, 이에 기반한 재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공원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된다면, 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공원은 행사 장소 및 카페,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공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보다 전략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하게 됨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공원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포함함.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조한솔 외, 2014)
 - 심리적 안정감 제공: 공원의 존재 자체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자연경관과 녹음이 정서적 회복에 기여함
 -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공원은 운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신체 건강 및 웰빙 증진에 기여함
 - 교육 및 학습의 장: 공원은 야외 학습과 소풍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동의 신체적·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커뮤니티 형성: 공원은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함
 - 일자리 창출: 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강화: 공원은 도시의 문화적·역사적 자산으로 작용하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
 - 생활 편의성 향상: 도시공원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환경적 가치: 도시공원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함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공원은 특정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 공원의 나무와 식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함
 - 도시 홍수 예방 및 수자원 관리: 공원 내 녹지와 저류지는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하여 홍수 위험을 줄이며, 수자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녹지는 여름철 도시의 기온을 낮추고, 미세기후 조절 기능을 함

- 대기질 개선: 공원은 대기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녹색 허파(Green Lungs)"로 기능함
- 친환경 교통 및 운동 공간 제공: 공원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이동 수단 (예: 자전거, 산책로) 및 저비용 운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함

2 | 도시공원 관련 법제 및 정책 방향

-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도시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부처가 다양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자료) 최희선 외(2019)

(그림 2-1) 다양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도시공원·녹지

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됨
 -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6호 나목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주에 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항에서는 공원을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적인 계획 아래 도시공원을 관리하도록 명

시하고 있음

-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는 도시공원의 개념과 종류(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를 정의하여 도시 내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는 도시공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내 균형 잡힌 공원 배치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함으로써, 공원이 체계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발사업 시행 시 일정 비율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4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원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규모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개발계획의 규모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조항을 통해,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도시 내 녹지 공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2) 환경부: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지 확대

- 도시 내 녹지공간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환경보전, 생태계 복원, 대기질 개선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러 법령을 통해 도시공원의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도시공원 조성 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녹지 조성 및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관련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반환 규모는 납부한 부담금의 50% 이내이며, 최대 7억 원까지 지원됨. 대상 사업에는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이 포함됨
 - 조성사례: 김해시는 총 4억 3,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2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영읍 원도심의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맑은 바람 생태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3)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2조(정의)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 내 토지, 건축물, 생활공간을 활용한

- 농작물 경작, 수목·화초 재배, 곤충 사육(양봉 포함)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따라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 도시농업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활용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도시농업인을 지원하고 교육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동체 텃밭, 옥상정원 등 도시농업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4) 산림청: 도시숲, 수목원 및 정원 조성

- 산림청은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수목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음

▣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법의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됨. 특히,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수목원의 조성과 관리 또한 산림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산림청은 도시 내 녹지 조성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제58조(녹색자금) 제1항에 근거하여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함
- 녹색자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 외 기관 및 개인이 출연한 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녹색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으로 구성됨
- 이 자금은 다양한 산림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됨. 제58조제4항의 녹색자금 주요 활용 분야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청소년을 위한 산림체험 활동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등이 있음.
- 또한,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의 조성 및 운영, 산림환경 기능 증진과 관련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 증진사업, 해외 산림 환경 기능 증진 사업, 해외 산림자원 확보 사업, 그리고 산림복지 진흥 사업 등도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음
- 도시숲 조성은 「도시숲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 있음. 「도시숲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 내 수목원·정원을 조성하여 생태 교육 및 녹지 확장

- 도시 내 수목원과 정원 조성은 생태 교육을 강화하고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육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목원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분되며, 정원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세분화됨
- 특히, 공동체정원과 생활정원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등 주제별 정원을 조성하여 정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 관련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 산림청에서 2024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 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3개 내역사업이 있음(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24)

○ 기후대응 도시숲

- 도시 내 생활권과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 완화숲, 도시 탄소 저장숲으로 구분됨
 - 미세먼지 저감숲은 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생활권 주변에 조성됨
 - 도시열섬 완화숲은 도심 내 고온 지역이나 도로, 광장 등 포장 공간에 숲을 조성하여 여름철 폭염을 줄이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도시 탄소저장숲은 도심내 대규모 유휴지를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함
- 사업의 조성 단가는 1ha당 약 10억 원이며,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50% 지원함
- 사업 대상지는 산업단지와 공장지대뿐만 아니라 도로 및 철도 주변, 도심내 유휴지, 광장, 그리고 도시 생활권 인근의 대규모 유휴지 등 임

○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고 있음. 1차 시범사업(2019년~2022년)에 이어, 2차 사업(2022년~2025년), 3차 사업(2024년~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됨
- 현재 전국 27개 도시가 대상이며, 신규 조성에는 도시당 200억 원, 기존 숲을 보완하는 경우 도시당 100억 원(설계비 5억 원, 시공비 95억 원)이 투입됨
- 조성 형태는 도시 외곽의 산림과 도심 내 산재된 숲을 연결하는 방식임. 이를 위해 생성숲(외곽 산림), 디딤숲 및 확산숲(도시 내 거점숲), 연결숲(생성숲과 거점숲 연결) 구조로 숲을 조성하여,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정부는 국비 50%를 지원함

○ 자녀안심 그린숲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과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50~80개소를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관하며,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함
- 사업의 주요 방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도로 다이어트(차로 축소)와 함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아파트·공공기관 담장 주변에 녹지를 확충하여 자연 친화적인 통학 환경을 조성함

5) 도시공원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요약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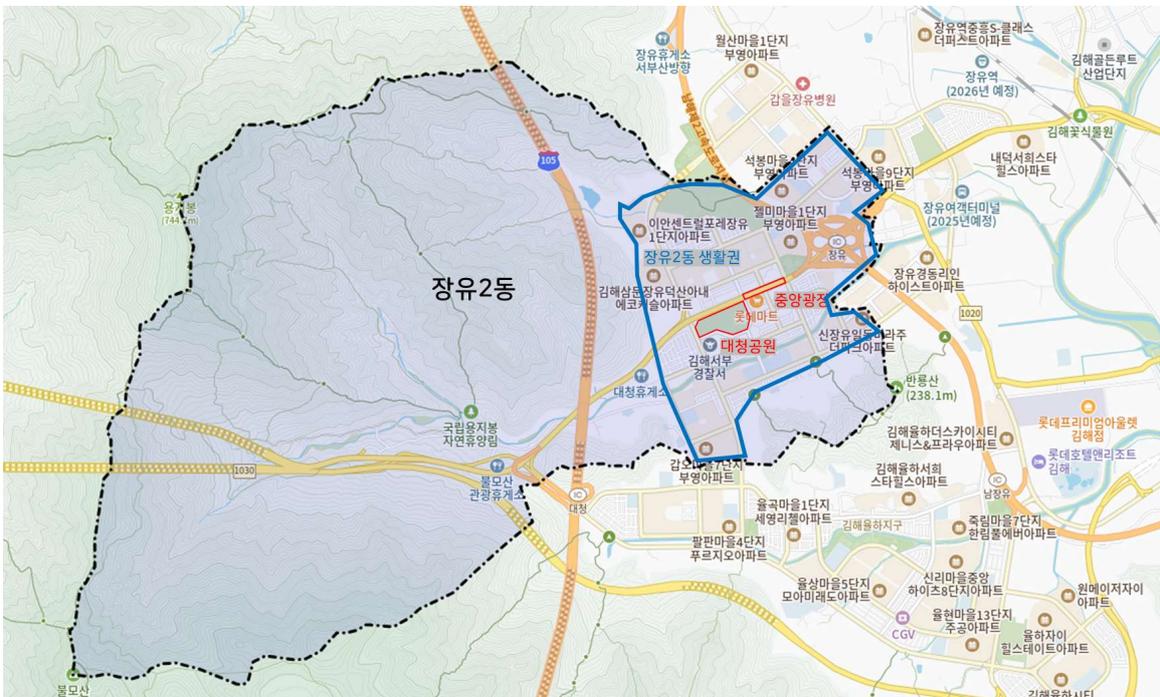
-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운영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가 소관 기능에 따라 공원 및 녹지 정책을 분담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함과 동시에, 환경보전, 도시농업, 기후 대응 등의 다층적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체계적 지정과 개발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통해 도시 기반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부담금 제도를 통해 생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녹지 회복 및 생태 숲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법제를 통해 도시민의 자율적 녹지 활용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도시숲법」 등을 근거로 도시 바람길숲,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기후 회복력 증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법제는 도시공원의 역할을 환경적, 사회적,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도시공원 운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최근 도시공원 정책은 환경·생태적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의 체류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이용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도시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일상 속 생활 인프라이자 커뮤니티 기반 활동의 거점으로 재정립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청공원과 중앙광장 또한 단일기능의 공간이 아닌, 상호 연계된 공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III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1 | 대상지 현황분석

1) 대상지 개요

- 본 연구의 범위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2동에 위치한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일원으로, 교육, 문화, 체육,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장유2동의 대표적 오픈 스페이스임
-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유2동은 서측은 대부분 불모산-용지봉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이며, 실제 주거 및 상업 활동은 동측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음.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장유2동 생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연결성과 기능적 연계가 부족하여 공간의 유기적 활용이 어려우며, 현재는 각각 독립된 공간처럼 기능하고 있음



자료) 소상공인365 상권지도(2025.6.14.)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 장유2동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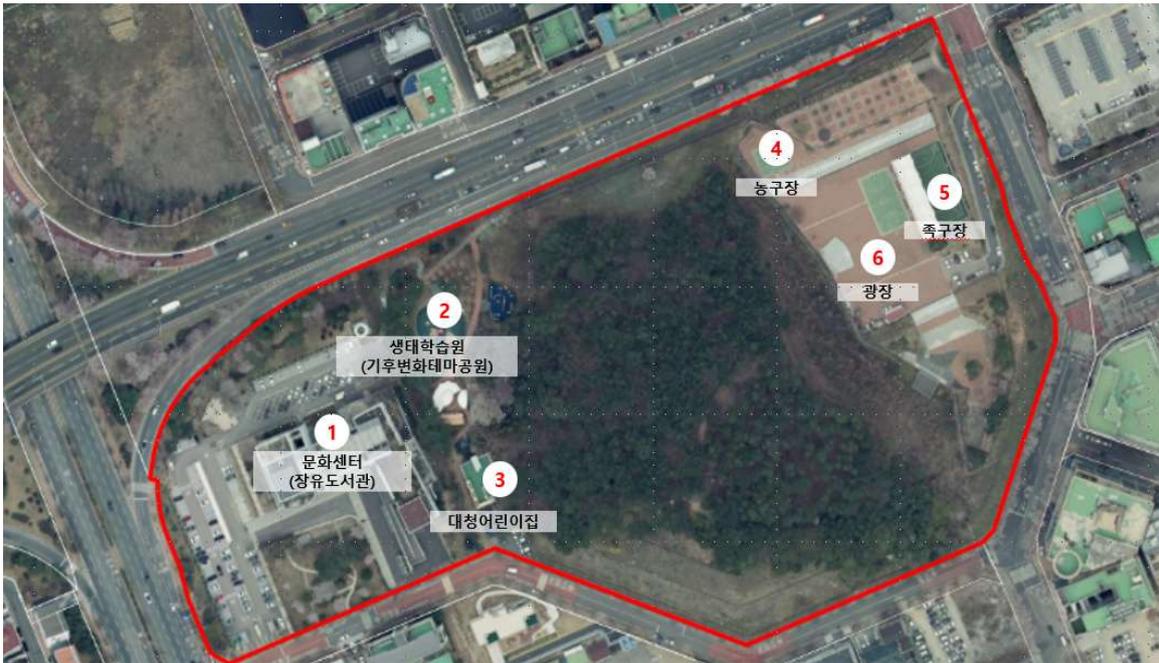
□ 대청공원 현황

- 대청공원은 김해시 장유2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학습, 운동, 소통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공원의 서측에는 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생태학습원(기후변화테마공원) 등 교육·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측에는 광장과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음. 공원 중앙부는 산림(임야)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공원 중앙부의 미개발로 인해 서측과 동측 공간 간의 동선이 단절되어 공간 활용의 연계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동측 공간과 낮은 시설 이용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원의 전체적인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 또한,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 및 외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본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명칭은 ‘계동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각종 지도, 안내 표지판 등에서는 ‘대청공원’으로 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청공원’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사실상 공식 명칭보다 대중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표 3-1> 대청공원(계동공원) 개요

구분	내용
공원명	계동공원(시설의 세분 : 근린공원)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299번지
면적	공원 면적 77,089㎡ (시설면적: 28,275㎡, 시설율 : 36.68%)
주요시설	교양시설(문화센터, 대청어린이집, 생태학습원(기후변화테마공원) 운동시설(농구장, 족구장 및 풋살장), 조경시설, 편의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자료) 김해시 고시 제 2023-1287호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2025) 활용

(그림 3-2) 대청공원 시설 위치



자료) 대청어린이집: 저자 촬영 / 그외: 김해시 공식 블로그(검색일: 2025.6.13.)

(그림 3-3) 대청공원 시설

▣ 중앙광장 현황

- 중앙광장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155, 155-1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2,200㎡로, 2001년에 조성된 350m 길이의 선형 광장임
- 본 광장은 장유2동 중심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청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도심 중심상권에 위치한 광장이나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임
- 공간 구성의 특성
 - 중앙광장은 도로를 중심으로 양측 공간이 두 구역으로 분리된 선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 간의 연계성과 통합적 활용이 제한적임
 - 광장의 양 끝단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으나,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광장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넓게 조성된 개방 공간으로, 지역 주민이 모여 행사, 공연, 체험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해당 공간은 활용도가 낮고 상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 전반적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공간의 잠재력 대비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표 3-2> 중앙광장 개요

구분	내용
시설명	중앙광장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155, 155-1
면적	공원 면적 12,200㎡ (350m 길이의 선형 구조)
주요시설	주차장, 기념 조형물, 자전거 거치대, 정자, 벤치, 야외무대 등



자료) 네이버 지도(2024.12.04.) 활용

(그림 3-4) 중앙광장 시설물 위치



자료) 저자 촬영

(그림 3-5) 중앙광장 시설물

2) 장유지역 인구 특성

□ 김해시 및 장유지역 인구 현황

- 김해시 전체 인구는 2020년 542,338명에서 2024년 531,676명으로 2.0% 감소하였으나, 장유지역 인구는 동기간 3.0% 증가하여 김해시 내 비중이 30.4%에서 32.0%로 확대되었음
- 장유지역 내에서도 장유1동과 3동은 각각 3.5%, 2.7% 증가하였고, 장유2동은 2.9% 증가하였음. 특히 장유2동은 2022년까지 인구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 37,680명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37,542명을 기록하였음

<표 3-3> 김해시 및 장유지역 인구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율*
	인구수	비율									
김해	542,338	100	537,673	100	535,129	100	533,659	100	531,676	100	-2.0
장유지역	165,079	30.4	166,048	30.9	165,846	31.0	167,707	31.4	170,001	32.0	3.0
1동	56,598	10.4	56,720	10.5	55,943	10.5	56,046	10.5	58,557	11.0	3.5
2동	36,500	6.7	36,269	6.7	35,945	6.7	37,680	7.1	37,542	7.1	2.9
3동	71,981	13.3	73,059	13.6	73,958	13.8	73,981	13.9	73,902	13.9	2.7
장유지역 외	377,259	69.6	371,625	69.1	369,283	69.0	365,952	68.6	361,675	68.0	-4.1

주) * 2020년 대비 2024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 연령별 인구 변화

- 장유지역은 김해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됨.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연령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2020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김해시 전체에서 0~9세 아동 비율은 9.1%

에서 6.9%로 2.2%p 감소하였고, 장유지역 역시 12.1%에서 8.8%로 3.3%p 하락하였음. 특히 장유2동은 10.1%에서 6.8%로, 장유3동은 15.2%에서 11.0%로 큰 폭의 하락이 관찰되었음. 이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학령기 아동의 외부 지역 유출 또는 신규 유입의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청소년층인 10~19세의 경우 김해시 전체는 11.3%에서 11.1%로, 장유지역은 14.6%에서 14.5%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장유2동은 14.2%에서 12.9%로 소폭 감소하였음. 반면, 장유3동은 15.0%에서 16.5%로 증가하였음
- 20대 청년층은 김해시에서 12.7%에서 10.7%로, 장유지역에서 10.7%에서 10.2%로 각각 하락하였음. 장유1동(12.2% → 11.1%)과 장유3동(9.0% → 8.7%)도 유사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유2동은 11.9%에서 11.8%로 거의 변화가 없어 청년층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30~39세 연령대는 장유 전체에서 14.4%에서 12.3%로 하락하였고, 특히 장유3동은 17.0%에서 12.8%로 급감하였음
- 반면, 40~49세 중장년층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장유지역 전체에서 22.0%에서 20.4%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장유3동은 23.0%에서 23.1%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음. 특히 장유3동의 경우 전 연령대 중 40~49세의 비중이 가장 높아, 가족 단위로 정착한 지역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남
- 50~59세 연령층의 증가는 장유지역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장유2동은 2020년 16.4%에서 2024년 21.1%로, 장유1동은 16.3%에서 20.5%로 증가하였음. 이는 장기 거주자의 연령 고령화, 중장년층 유입 증가 등으로 설명 가능하며, 해당 계층을 위한 건강·여가·지역 커뮤니티 기반 수요의 증가가 예측됨
- 60세 이상 고령층(60~69세, 70세 이상)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장유지역의 60~69세 비율은 7.1%에서 9.1%로 증가하였고, 70세 이상 인구는 4.8%에서 6.2%로 증가하였음. 장유지역 역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3-4> 지역별 연령별 인구 분포 비율

(단위: %)

구분	김해		장유지역								그 외	
			장유 전체		1동		2동		3동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0~9세	9.1	6.9	12.1	8.8	9.5	7.3	10.1	6.8	15.2	11.0	7.8	6.0
10~19세	11.3	11.1	14.6	14.5	14.3	13.0	14.2	12.9	15.0	16.5	9.9	9.5
20~29세	12.7	10.7	10.7	10.2	12.2	11.1	11.9	11.8	9.0	8.7	13.6	10.9
30~39세	12.8	12.0	14.4	12.3	12.2	12.2	12.6	11.3	17.0	12.8	12.1	11.8
40~49세	18.2	16.7	22.0	20.4	21.2	18.1	21.3	18.8	23.0	23.1	16.5	14.9
50~59세	17.9	19.6	14.1	18.5	16.3	20.5	16.4	21.1	11.3	15.7	19.5	20.1
60~69세	10.8	14.0	7.1	9.1	8.1	10.4	8.0	10.4	5.9	7.5	12.3	16.4
70세 이상	7.3	9.1	4.8	6.2	6.0	7.4	5.4	6.9	3.5	4.9	8.3	10.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 인구구조 변화가 주는 시사점

- 장유지역은 김해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유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5년간의 인구변화 흐름을 보면 아동·청소년층의 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장유지역의 아동·청소년층 비중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김해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장유지역의 0~19세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23.3%로 김해시 전체 18.0%보다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공원 내에는 단순 놀이시설을 넘어 안전하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공간, 보호자 동반 커뮤니티형 놀이시설, 청소년 체험형 공간, 방과 후 이용 가능한 열린 학습·휴식공간 등이 요구됨
- 30~49세 청장년층의 비중은 2024년 기준 장유지역 전체 인구의 32.7%를 차지하며, 지역 내 가장 활발한 경제·사회활동 계층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들은 공원에 단순 휴식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 여가, 커뮤니티 소통, 등 복합적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 공간 구성이 고려되어야 함

- 고령층의 증가세도 뚜렷하여 나타남. 이러한 고령화 흐름은 향후 공원이 건강 증진, 치유,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함. 바닥 포장, 그늘, 벤치, 운동기구, 안전한 보행환경 등 고령친화적 요소 도입이 필수적이며, 인지 자극형 산책길, 작은 음악회, 텃밭 공간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장유지역의 인구 변화는 특정 연령층에 맞춘 단일 기능의 공원이 아닌, 다세대가 공존하며 일상 속 다양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형 공공공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3) 유동인구 분석

▣ 분석개요

- 대청공원 일대의 유동인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원 주변의 주요 생활 공간 및 상업거점을 중심으로 유동인구를 분석함
- 분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365」 상권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범위와 방법을 적용하였음
 - 분석범위: 유동인구 분석은 대청공원 및 인근 지역을 다음의 3개 구역으로 구분함
 - ① 대청공원 부문: 대청공원 동측 구역으로, 운동시설과 광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해당 구역의 유동 흐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개별 분석 대상으로 구분함
 - ② 장유도서관 부문: 장유도서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 등 교육·문화시설이 밀집한 구역으로, 대청공원 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곳임
 - ③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 부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365」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메가병원 정류장’으로 조회되는 상권으로, 대청공원 인근의 주요 소비활동 중심지임
 - 분석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365」 플랫폼 내 상세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분석 영역(폴리곤 기준)에 대해 시간대·요일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추출함. 단, 사용자 지정 방식의 특성상 지정 범위의 차이에 따라 분석 수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유동인구 산출기준: SKT통신사 외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50M 단위의 셀로 추정된 해당 월의 일평균 추정 데이터. 선택 영역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추정됨. 도로, 차량이동은 제외함(소상공인365 홈페이지)
- 분석기간: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조회 기준일 : 2025년 6월 13일)



자료) 소상공인365 상권지도(2025.6.1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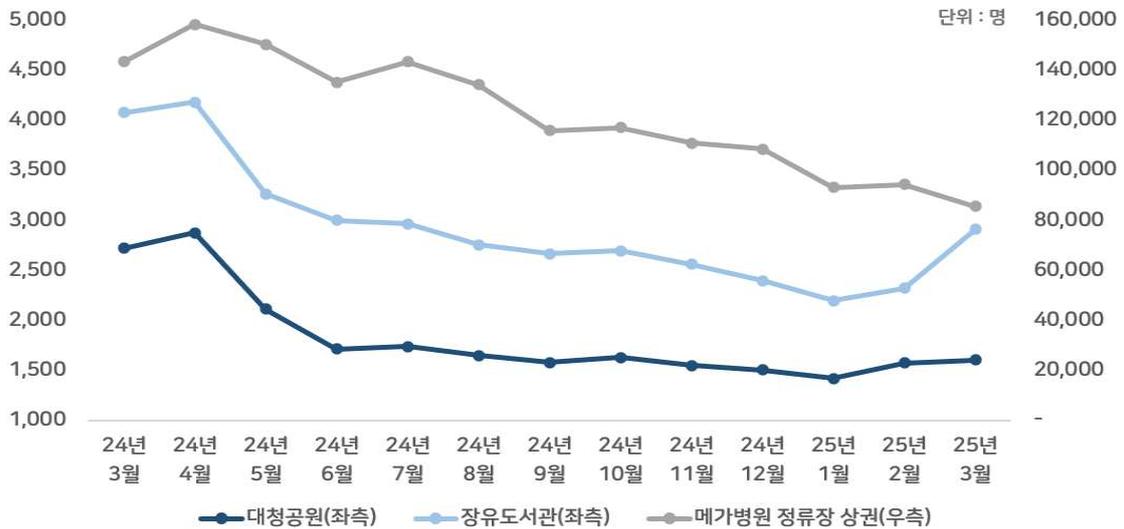
(그림 3-6) 유동인구 분석범위

□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

-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3개월간 대청공원 및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 분석 결과는 공원 내 공간 간 이용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장유도서관 구역은 일평균 유동인구가 2,922명에 달하며 문화·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체류 중심의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대청공원 동측의 운동시설·광장이 있는 부문은 일평균 1,819명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물리적으로 바로 인접한 두 구역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약 1.6배 차이를 보이며, 공간별 기능과 접근성, 이용목적의 차이가 유동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원 인접 상권(메가병원 정류장 상권)의 유동인구는 일평균 12만 명 수준으로, 공원과 상권 간 보행 접근성 개선 및 상권과 연계된 프로그램 기획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개 구역 모두 2024년 4월에 유동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한 뒤 여름철과 겨울철을 거치며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5년 2~3월에는 장유도서관과 대청공원에서 소폭 반등되는 현상이 관찰됨
- 반면,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은 2024년 4월 158,459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5년 3월에는 85,625명으로 46.0% 감소함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 리포트

(그림 3-7)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 추이

<표 3-5>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

(단위: 명)

	24년 3월	24년 6월	24년 9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평균 ¹⁾
대청공원	2,719	1,710	1,576	1,504	1,417	1,572	1,603	1,819
장유도서관	4,077	2,997	2,666	2,397	2,196	2,319	2,911	2,922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	143,399	135,193	115,871	108,534	93,107	94,240	85,625	122,371

주) 1)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평균값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 리포트

▣ 성별·연령별 일평균 유동인구

○ 성별 일평균 유동인구

- 2025년 3월 기준 대청공원, 장유도서관,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 등 3개 구역 모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일평균 유동인구

- 모든 구역에서 50대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4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분석 대상지인 대청공원 및 인근 생활권이 청소년 및 청년층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적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도 건강, 휴식, 가족 커뮤니티 중심의 기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의 유입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해당 연령층의 유입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표 3-6> 성별·연령별 일평균 유동인구 비율(2025년 3월 기준)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청공원	58.8%	41.2%	6.0%	8.0%	13.0%	24.0%	28.0%	21.0%
장유도서관	60.6%	39.4%	5.0%	8.0%	14.0%	24.0%	28.0%	21.0%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	56.9%	43.1%	8.0%	8.0%	12.0%	23.0%	27.0%	22.0%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 리포트

▣ 주중·요일별 일평균 유동인구

○ 주중 일평균 유동인구

- 대청공원과 메가병원 상권은 주중 유입이 각 51.4%, 48.6%이며, 장유도서관은 주말 유입이 57.5%로 나타남

○ 요일별 일평균 유동인구

- 대청공원은 주중 요일별 유동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금요일(15.2%)과 토요일(14.6%)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장유도서관은 토요일(18.5%)과 일요일(16.6%)의 비중이 가장 높아, 주말 유입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며, 금요일(15.9%)에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반면, 토·일요일은 각각 11.9%, 10.9%로 주말 유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함

<표 3-7> 주중·요일별 일평균 유동인구 비율(2025년 3월 기준)

	주중	주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청공원	51.4%	48.6%	14.0%	14.4%	14.5%	14.3%	15.2%	14.6%	12.8%
장유도서관	42.5%	57.5%	12.6%	12.8%	12.8%	12.9%	13.7%	18.5%	16.6%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	57.6%	42.4%	15.2%	15.2%	15.8%	15.1%	15.9%	11.9%	10.9%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 리포트

□ 시간대별 일평균 유동인구

- 대청공원, 장유도서관,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 모두 오후 시간대(14시~18시)와 저녁 시간대(18시~23시)에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대청공원은 14시~18시(27.8%), 18시~23시(25.8%)에 가장 많은 유동이 집중되어 있음
 - 장유도서관은 14시~18시(27.9%)가 핵심 유동 시간대이며, 오전 시간대(9시~12시, 16.3%)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은 14시~18시 및 18시~23시가 동일한 비율(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야간 시간대(23시~5시) 유동인구 비율은 3개 구역 중 가장 높은 9.7%를 나타냈으며, 이는 야간 영업 및 근무 시설(병원, 편의점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표 3-8> 시간대별 일평균 유동인구 비율(2025년 3월 기준)

	5~9시	9~12시	12~14시	14~18시	18~23시	23~5시
대청공원	12.7%	15.6%	11.7%	27.8%	25.8%	6.2%
장유도서관	13.6%	16.3%	12.1%	27.9%	24.3%	5.7%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	13.7%	14.4%	10.7%	25.8%	25.8%	9.7%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 리포트

4) 공간구조 및 연계성 분석

▣ 장유2동 생활권의 중심 입지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김해시 장유2동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 기능의 오픈 스페이스로, 장유2동 생활권을 대표하는 핵심 공간임
- 북측과 남측에 고밀도의 공동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측으로는 중심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음
- 특히 대청공원 내부에는 장유도서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생태학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서측 맞은편에는 김해서부경찰서, 동측에는 대형마트 등 주요 공공·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도보 15분 이내에는 켈미공원, 장유스포츠센터, 수변공원 등 다양한 여가 공간이 분포해 있어,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보행 기반 생활권 내 복합 기능 거점으로서의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공간임



자료) 구글어스(2025.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8) 대청공원 인근 주요 시설 위치

▣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내부 공간구조

- 대청공원은 중앙광장, 산책로, 운동시설, 놀이공간 등으로 기능별 구획이 이루어져 있으나, 각 공간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여 통합된 이용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산림은 동·서측 공간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며,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공간 중심성을 저해하고 있음
- 중앙광장과 대청공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며,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 연속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 또한, 대청공원이 중앙광장보다 지형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단차가 존재하며, 이는 고령자 및 보행 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두 공간 간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원 내에서도 이용자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 콘텐츠 및 안내 체계 등이 부족하여 공간 이용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임
- 향후 공간 재구성 시, 동선의 재정비와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

▣ 보행 및 교통 연계성 분석

- 도보 접근성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김해시 장유2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도보 기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 주변 주거지에서 공원까지 도보 15~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곳에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권 내 여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짐
 - 그러나 실제 접근 경로에서는 공원과 거주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의 물리적 단절, 보행환경 정비 부족, 보행 유도 미흡 등의 문제가 확인됨
 - 이로 인해 걷기 좋은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보행자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과 동선 정비가 요구됨
- 자전거 접근성
 -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내부는 자전거 이용을 고려한 동선이나 설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공원 접근 경로 또한 자전거 도로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대중교통 접근성
 - 대청공원 남서측 김해서부경찰서 정문 맞은편에 정유도서관 정류장이 위

치하고 있음. 해당 정류장에는 21번, 22번, 26번(저상), 97-1A번, 770번 노선이 정차하고 있음

- 21번: 약 15~17분 간격 운행, 김해 원도심과 장유지역을 연결
- 22번: 약 35~40분 간격, 장유지역 내 비교적 긴 배차 노선
- 26번: 약 14~16분 간격, 롯데워터파크를 기점으로 장유지역을 순환
- 97-1A번, 770번: 창원 방면으로 운행되는 광역노선
- 해당 정류장 이외에도 중앙광장 인근 장유스포츠센터 정류장, 상업지역의 대청2교 정류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여, 장유지역 내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우수한 편에 속함

○ 차량 접근성 및 주차 여건

- 대청공원은 금관대로, 대청로 등 주요 도로와의 연계성이 양호하여 차량 접근은 원활한 편임. 다만, 공원 내부 및 인접부의 주차면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장유도서관 인접 주차장: 도서관 이용자 중심
- 대청공원 내 주차장: 무료 운영되나 주차 공간 협소(6대)
- 중앙광장 양측: 소규모 주차 공간 존재(서측: 20대, 동측: 17대)
- 인근 상업지역 이용객들로 인하여 해당지역은 상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 시민 인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개요

- 중앙광장 및 대청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김해시 거주자 및 공원 이용객
 - 조사지역: 김해시
 -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기: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 참여자수: 총 410명

□ 설문조사 문항

- 설문문항은 응답자 일반현황 4문항, 일반적 공원이용 형태 7문항,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각 12문항과 10문항으로 구성됨

<표 3-9> 설문조사 문항

구분		내용	문항수
응답자 일반현황		거주지역, 연령, 성별, 직업	4
일반적 공원 이용 형태		김해시 대표공원, 공원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동반 이용자, 이용 시설, 미방문 사유	7
이용현황 및 개선방향	대청공원	방문 여부, 미방문 사유, 이용 시간, 이용 목적, 접근방법, 만족도, 활성화 방안 등	12
	중앙광장		10

□ 설문분석 방법

- 각 설문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5점 척도를 기반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결과를 제시함

2)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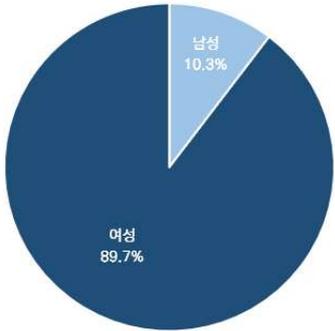
- 본 설문조사는 대청공원과 중앙광장 이용 행태 및 향후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여성 비율이 89.7%로 매우 높고, 남성은 10.3%에 불과해 성별 표본이 편중되어 있음
 - 연령대는 40대(34.5%)와 50대(26.2%)가 다수를 차지하며, 30대(20.7%), 60대(10.6%)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87.9%가 장유지역(장유1·2·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대상지의 위치 및 생활권 특성상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됨
- 이와 같이 응답자 구성이 특정 성별과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어 표본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상지의 이용층이 갖는 특성과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한 참고 가치가 있음
- 따라서 본 설문 결과는 향후 시설 개선 시 이용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다른 조사자료와 비교·보완하는 참고 자료로 제시함

□ 성별

-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남성이 10.3%, 여성이 89.7%로 구성됨

<표 3-10> 성별 응답자

구분	빈도수	비율
남성	42명	10.3%
여성	364명	89.7%
합계	406명	100.0%



□ 연령

- 연령별 응답자는 40대 34.5%, 50대 26.2%, 30대 20.7%, 60대 10.6% 등으로 나타남

<표 3-11> 연령별 응답자

구분	빈도수	비율
10대	2명	0.5%
20대	14명	3.5%
30대	82명	20.7%
40대	137명	34.5%
50대	104명	26.2%
60대	42명	10.6%
70대	14명	3.5%
80대	2명	0.5%
합계	397명	100.0%

□ 거주지역

- 거주지역은 장유지역과 장유지역 외로 구분함
 - 장유지역 :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 장유지역 외 :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을 제외한 지역
- 응답자의 87.9%가 장유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2> 거주지역별 응답자

구분	빈도수	비율	
장유 지역	장유1동	63명	16.3%
	장유2동	111명	28.7%
	장유3동	166명	42.9%
	소계	340명	87.9%
장유지역 외	47명	12.1%	
합계	387명	100.0%	

3) 분석결과

(1) 이용 형태

□ 김해의 대표공원

- 김해의 대표공원은 1순위 연지공원 40.7%, 2순위 대청공원 18.1%, 3순위 덕정공원 7.2%, 4순위 모산공원 5.9%, 5순위 관동공원 2.6%로 나타남

<표 3-13> 김해의 대표공원

구분	빈도수	비율
연지공원	247명	40.7%
대청공원	110명	18.1%
덕정공원	44명	7.2%
모산공원	36명	5.9%
관동공원	16명	2.6%
능동공원	12명	2.0%
기타	142명	23.4%
합계	607명	100.0%

주) 본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그림은 워드클라우드 생성기를 활용함

□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방문 여부

- 최근 1년간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방문 여부에 대한 응답한 결과 대청공원에 방문한적 있다 57.1%, 없다 42.9%로 나타났으며, 중앙광장의 경우 응답자의 42.2%가 방문한적이 있다고 응답함

<표 3-14>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방문 여부

구분	대청공원		중앙광장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있다	234명	57.1%	173명	42.2%
없다	176명	42.9%	237명	57.8%
합계	410명	100.0%	410명	100.0%

- 응답자의 35.1%는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모두 방문해 본적이 없으며, 대청공원은 방문하였으나 중앙광장을 방문하지 않은 응답자는 22.7%, 중앙광장을 방문하였으나 대청공원을 방문하지 않은 응답자는 7.8%로 나타남

<표 3-15> 대청공원과 중앙광장 방문 여부 교차분석

구분		대청공원			
		있다		없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중앙광장	있다	141명	34.4%	32명	7.8%
	없다	93명	22.7%	144명	35.1%

주) 비율 = 해당 빈도수 / 전체응답자수(410명)

- 최근 1년간 대청공원을 이용한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49.4%는 다른 공원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청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3개월에 1회 이상 다른 공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은 67.6%는 하므로, 타 공원의 매력 요소 및 차별점을 분석하여 대청공원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 3-16> 대청공원 미이용자의 일반적 공원 이용

구분	일반적 공원 이용 빈도	빈도수	비율
		대청공원 미이용	거의 매일 주1~2회 주3~4회 1개월 1~3회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거의 이용하지 않음
합계		170명	100.0%

□ 이용 빈도

- 1개월 1회 이상 일반공원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64.4%인데 반해, 대청공원의 경우에는 36.6%, 중앙광장의 경우 22.0%로 나타남

<표 3-17> 일반적공원,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이용 빈도

구분		일반적 공원		대청공원		중앙광장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1개월 1회 이상	거의매일	26명	6.3%	11명	2.7%	4명	1.0%
	주1~2회	87명	21.2%	48명	11.7%	22명	5.4%
	주3~4회	65명	15.9%	28명	6.8%	19명	4.6%
	1개월 1~3회	86명	21.0%	63명	15.4%	45명	11.0%
	합계	264명	64.4%	150명	36.6%	90명	22.0%

주) 비율 = 해당 빈도수 / 전체응답자수(410명)

□ 미방문 사유

- 일반적 공원 및 대청공원이 미방문 사유 1순위가 ‘거주지와 멀어서’인 반면에, 중앙광장의 경우 ‘중앙광장이 어디인지 몰라서(50.4%)’로 나타남
- 미방문 사유 2순위를 보면 일반적 공원은 ‘공원을 이용할 시간이 부족해서(25.0%)’이나 대청공원은 ‘대청공원이 어디인지 몰라서(25.9%)’, 중앙광장은 ‘거주지와 멀어서(28.3%)’로 나타남

<표 3-18> 공원 및 광장 미방문 사유

구분	일반적 공원	대청공원	중앙광장
1순위	거주지와 멀어서 (44.0%)	거주지와 멀어서 (36.9%)	중앙광장이 어디인지 몰라서(50.4%)
2순위	공원을 이용할 시간이 부족해서(25.0%)	대청공원이 어디인지 몰라서(25.9%)	거주지와 멀어서 (28.3%)
3순위	산책로, 생태, 조경시설이 부족해서(9.0%)	산책로, 생태, 조경시설이 부족해서(12.3%)	운동, 문화, 여가, 문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6.5%)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이용률이 다른 일반 공원보다 현저히 낮고, 해당 지역의 인지도도 낮다는 점에서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지도 향상, 접근성 개선, 시설 및 콘텐츠 강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용 시간대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 모두 평일과 주말에 오후 시간대 이용률이 가장 높음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말의 경우 대청공원의 57.0%, 중앙광장의 51.8%가 오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일 역시 오후 시간대 방문이 가장 많았음
- 중앙광장은 평일과 주말 모두 점심시간대 이용 비율이 2순위로 높았던 반면, 대청공원은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점심시간대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앙광장이 상대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방문이 많고, 대청공원은 주말에 여유로운 일정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함

<표 3-19> 공원 및 중앙광장 이용 시간대

구분	평일			주말		
	일반적 공원	대청공원	중앙광장	일반적 공원	대청공원	중앙광장
1순위	오후(40.4%)	오후(42.0%)	오후(37.5%)	오후(58.2%)	오후(57.0%)	오후(51.8%)
2순위	오전(24.7%)	오전(22.0%)	점심(20.0%)	점심(18.6%)	점심(19.4%)	점심(19.3%)
3순위	점심(11.4%)	점심(15.2%)	오전(20.0%)	오전(13.8%)	오전(11.3%)	저녁이후(11.4%)

□ 평균 이용시간

- 대청공원의 평균 이용 시간은 평일 1시간 22분, 주말 1시간 36분으로 나타남. 반면 중앙광장은 평일 1시간 7분, 주말 1시간 9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이용 시간을 보였음

<표 3-20>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의 평균 이용시간

구분	평일		주말	
	대청공원	중앙광장	대청공원	중앙광장
30분 이하	29명 18.1%	49명 38.3%	18명 11.9%	32명 29.6%
30분 초과~1시간 이하	7명 4.4%	51명 39.8%	56명 37.1%	45명 41.7%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105명 65.6%	18명 14.1%	55명 36.4%	25명 23.1%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19명 11.9%	5명 3.9%	14명 9.3%	3명 2.8%
3시간 초과	0명 0.0%	5명 3.9%	8명 5.3%	3명 2.8%
합계	160명 100.0%	128명 100.0%	151명 100.0%	108명 100.0%
평균 이용 시간	1시간 22분	1시간 7분	1시간 36분	1시간 9분

□ 이용 목적

- 일반적 공원,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모두 휴식, 산책을 위해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순위로는 대청공원은 운동을 위한 목적이 높았으며, 중앙광장은 문화행사 및 공연 참여가 높게 나타났음

<표 3-21>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이용목적

구분	대청공원		구분	중앙광장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휴식, 산책 등	129명	56.8%	휴식, 산책 등	78명	45.9%
운동	53명	23.3%	문화행사, 공연 참여	41명	24.1%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23명	10.1%	운동	22명	12.9%
환경, 생태 체험	11명	4.8%	만남, 대화	21명	12.4%
친목 도모	6명	2.6%	기타	8명	4.7%
기타	5명	2.2%	합계	170명	100.0%
합계	227명	100.0%			

□ 접근방법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도보 이용률이 각각 54.3%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자가용 이용률이 뒤를 이었음. 대중교통 이용률은 대청공원 5.1%, 중앙광장 7.3%로 두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음

<표 3-22>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접근방법

구분	대청공원		중앙광장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도보	127명	54.3%	82명	50.0%
자가용	93명	39.7%	69명	42.1%
대중교통	12명	5.1%	12명	7.3%
자전거, 오토바이	2명	0.9%	1명	0.6%
합계	234명	100%	164명	100%

▣ 동반 이용자

- 대청공원은 가족 방문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영유아 동반 가족’ 31.2%,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 16.7%로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음
 - ‘친구(동료)와 방문’ 비율도 19.9%로 비교적 높음
- 중앙광장은 친구 또는 개인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편임
 - ‘친구(동료) 방문’ 비율이 26.5%로 가장 높아, 사회적 모임이나 짧은 만남을 위해 방문하는 경향이 강함
 - ‘혼자 방문’하는 비율도 25.9%로 높게 나타남

<표 3-23> 동반 이용자

구분	일반적 공원		대청공원		중앙광장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혼자	82명	23.4%	46명	20.8%	42명	25.9%
영유아 동반 가족	113명	32.2%	69명	31.2%	34명	21.0%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	62명	17.7%	37명	16.7%	25명	15.4%
친구(동료)	56명	16.0%	44명	19.9%	43명	26.5%
이웃 주민	24명	6.8%	16명	7.2%	15명	9.3%
반려동물	13명	3.7%	6명	2.7%	1명	0.6%
기타	1명	0.3%	3명	1.4%	2명	1.2%
합계	351명	100.0%	221	100.0%	162명	100.0%

- 대청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광장은 개인 및 친구 단위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규모 모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이용 만족도

- 대청공원 이용 만족도
 - 대청공원의 전반적 이용 만족도는 3.62점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산책로 3.67점, 조경 3.52점, 기후테마공원 3.52점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주차장 3.07점, 공원프로그램 3.17점, 벤치, 그늘막 3.32점으로 나타남
- 개별 항목들의 평균 점수는 3.41점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주차장, 공원 프로그램, 휴게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산책로, 조경, 기후테마공원 등 자연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원의 자연 친화적 특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24> 대청공원 이용 만족도

구분	평균점수
전반적 만족도	3.62점
산책로	3.67점
조경	3.52점
기후테마공원	3.52점
광장시설	3.44점
운동시설	3.42점
화장실	3.42점
안내표지판	3.38점
벤치, 그늘막	3.32점
공원프로그램	3.17점
주차장	3.07점
평균	3.41점

○ 중앙광장 이용 만족도

- 중앙광장의 전반적 만족도는 3.26점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야외무대 3.23점, 벤치, 그늘막 3.20점, 광장시설 3.20점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주차장 2.93점, 운동시설 3.02점, 조경 3.14점으로 나타남
- 중앙광장 세부 항목들의 평균 점수는 3.15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공연 관련 시설 만족도는 높은 반면, 주차장, 운동시설, 조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
- 이에 따라, 야외무대를 활용한 문화행사 활성화, 주차 공간 개선, 운동시설 확대, 조경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함

<표 3-25> 중앙광장 이용 만족도

구분	평균점수	
전반적 만족도	3.26점	주차장 2.93점
야외무대	3.23점	운동시설 3.02점
벤치, 그늘막	3.20점	조경 3.14점
광장시설	3.20점	안내표지판 3.17점
화장실	3.17점	화장실 3.17점
안내표지판	3.17점	광장시설 3.20점
조경	3.14점	벤치, 그늘막 3.20점
운동시설	3.02점	야외무대 3.23점
주차장	2.93점	전반적 만족도 3.26점
평균	3.15점	

(2) 활성화 방안

▣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 대청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 산책로 및 자연경관 개선 21.6%, 공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19.2%, 문화 이벤트 활성화 17.2%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나타났음

<표 3-26>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구분	빈도수	비율
산책로, 자연경관 개선	155명	21.6%
공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138명	19.2%
문화 이벤트 활성화	124명	17.2%
휴식공간 확충	97명	13.5%
테마공원 조성	74명	10.3%
체험시설 확대	66명	9.2%
인근 시설과 연결성 강화	51명	7.1%
주차시설 개선	10명	1.4%
기타	4명	0.6%
합계	719명	100.0%

주) 본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고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산책로 및 자연경관 개선
 -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항목으로, 방문객들은 공원의 자연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는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자연을 즐기며 걷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기존 산책로의 정비, 계절별 경관 조성, 다양한 테마 산책로 마련 등이 필요함
- 공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 공원의 차량 접근성 및 장유도서관과 중앙광장에서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인근 시설과 연계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문화 이벤트 활성화
 - 공원을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연계된 복합 문

화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야외 콘서트, 플리마켓, 전시회, 계절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방문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형 콘텐츠 도입이 중요함

▣ 대청공원 테마공원 주제 선호도

- 복합테마공원(23.0%)과 도시생태공원(22.8%)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여, 대청공원 이용자들이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공원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원함을 보여줌
- 체육공원(16.0%)과 문화공원(12.6%)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3-27> 대청공원 테마공원 주제 선호도

구분	빈도수	비율
복합테마공원	149명	23.0%
도시생태공원	148명	22.8%
체육공원	104명	16.0%
문화공원	82명	12.6%
산림휴양공원	69명	10.6%
기후테마공원	67명	10.3%
도시농업공원	22명	3.4%
보훈공원	5명	0.8%
기타(어린이테마)	3명	0.5%
합계	649명	100.0%

주) 본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 대청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타의견

- 그 외 기타 의견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이벤트 강화, 야외 도서관, 책읽는 공간 조성, 어린이 관련 시설,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함

<표 3-28> 대청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행사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야외 책읽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린이를 위한 시설(놀이터)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많은 가족들이 방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인근 공원과 대청천이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 대청공원, 중앙광장을 연계하여 하루동안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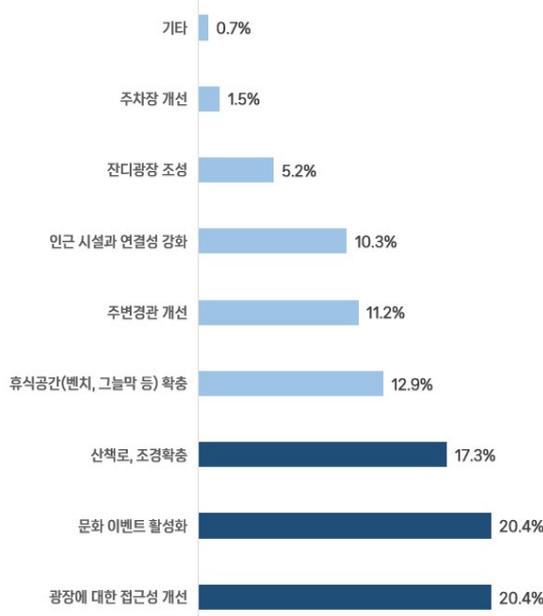
주) 그림은 워드클라우드 생성기를 활용함

▣ 중앙광장 이용 활성화 방안

- 중앙광장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광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문화 이벤트 활성화가 각 20.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책로 및 조경확충이 17.3%로 나타남
- 광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함께, 해당 공간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표 3-29> 중앙광장 이용 활성화 방안

구분	빈도수	비율
광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152명	20.4%
문화 이벤트 활성화	152명	20.4%
산책로, 조경확충	129명	17.3%
휴식공간(벤치, 그늘막 등) 확충	96명	12.9%
주변경관 개선	83명	11.2%
인근 시설과 연결성 강화	77명	10.3%
잔디광장 조성	39명	5.2%
주차장 개선	11명	1.5%
기타	5명	0.7%
합계	744명	100.0%



주) 본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3) 시사점

▣ 공원의 접근성과 인지도 향상 필요

- 조사 결과,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났음
- 대청공원 미방문 이유 중 ‘거주지와 멀어서’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어디인지 몰라서’라는 응답도 25.9%를 차지함
- 중앙광장은 미방문 사유로 ‘어디인지 몰라서’가 50.4%로 나타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안내 개선이 필요함

▣ 공원의 차별화된 기능 및 콘텐츠 제공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이용 목적을 보면,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모두 ‘휴식과 산책’이 1순위로 나타났으나, 2순위의 대청공원은 운동, 경우 중앙광장은 ‘문화 행사 및 공연 참여’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이에 따라 두 공간을 차별화된 테마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청공원은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산책로, 조경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광장은 문화 예술 중심 광장으로 특화하여 공연, 전시,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해야 함
- 이를 위해 대청공원 내 복합테마공원과 도시생태공원이 가장 선호된 점을 반영하여, 자연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 중앙광장은 야외무대를 활용한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가 요구됨

▣ 공원의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보완 필요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 모두 벤치 및 그늘막, 공원 프로그램,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 대청공원의 경우 벤치 및 그늘막(3.32점), 공원 프로그램(3.17점), 주차장(3.07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함
- 중앙광장 역시 주차장(2.93점), 운동시설(3.02점)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대청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놀이 및 체험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음. 또한, 중앙광장은 이용객이 많은 점심 시간대에 맞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문화·예술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중앙광장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광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문화 이벤트 활성화가 각 20.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책로 및 조경확충이 17.3%로 나타남. 이는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계절별 축제,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문화 이벤트 확대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및 가족 단위 활동 공간 조성
 -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한 문화 이벤트
- 특히 중앙광장은 야외무대 활용도를 높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 사례조사

1) 산림구역 공간 구성 사례

- 산림구역은 기존 산림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유아가족 단위의 교육 및 체험, 자연예술 프로그램, 치유헌동 등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산림교육 및 체험 중심의 대표 사례인 유아숲체험원, 자연예술 활동 중심의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치유·문화 복합 기능의 숲속도서관과 치유의 숲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음

(1) 산림교육: 유아숲체험원

-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감각을 자극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자연친화형 놀이·학습 공간임
- 단순한 야외 놀이터를 넘어, 유아기의 신체·인지·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로 각광받고 있음
- 산림청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형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499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이 등록·운영 중에 있음
- 김해시에도 금병공원, 모산, 분성산, 임호산 등 4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음

▣ 유아숲체험원의 기본개념

- 법적 정의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기본개념
 - 산림청(2014)은 유아숲체험원을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인 성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실내교육이나 정형화된 놀이시설과는 차별화된 개념임
 - 유아숲체험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숲이라는 자연 그 자체가 야외

체험학습장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됨

- 특히, 인공 구조물보다는 지형, 식생, 자연물 등을 활용한 자연 기반의 체험활동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며, ‘숲을 만나고, 숲을 발견하고, 숲과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생태적 감수성과 사회성,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둠

▣ 유아숲체험원의 공간구성 요소

○ 야외체험학습장 : 유아숲체험원의 주요 야외 활동 공간

- 자연놀이공간
 - 유아의 창의성과 신체 발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유 놀이공간으로, 나무, 돌, 흙, 물 등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함. 물놀이터, 통나무 밸런스 놀이, 나무오르기, 낙엽더미 언덕, 흙놀이터, 밧줄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탐색·관찰 공간
 - 숲 생태계 속 동식물과 지형 등을 관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곤충 탐사장, 나뭇잎 및 열매 관찰터, 숲 해설판, 생태 경로(곤충호텔, 나무이름 알기 등) 등이 설치됨
- 모임 및 쉼 공간
 - 활동 전후 모임과 간단한 수업,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나무 벤치, 원형 평상, 목재 데크, 그늘 쉼터, 교사·지도사 활용 구역 등으로 구성됨

○ 기타 부속 시설

- 산책 및 이동 동선
 - 공간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행 동선으로, 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고려하여 완만한 경사와 비포장길 위주로 설계함
 - 흙길, 데크길, 안내 표지, 경사로 등으로 구성됨
- 안전·관리시설
 - 체험원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시설로, 응급상황 대피지점, 안내표지판, 울타리, 간이 화장실, 간이 물세척 시설 등을 포함함



자료) 산림청(2014)

(그림 3-9) 공간 특성에 맞는 야외체험학습장

(2)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 개요

- 충청남도 공주시 연미산에 위치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은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자연재료를 활용한 조형 예술 작품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생태문화 공간임
- 2006년 연미산 솔숲 일대에 4만 9586㎡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고마나루 전설을 모티브로 삼은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방문객이 5만명에 달함(지유리, 2023.7.13.)
-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주제로 하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통해 공간 내 설치작품이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음
- 공원 전역에는 약 100점 이상의 자연미술 작품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미술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자료)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홈페이지(접속일: 2025.7.11.)

(그림 3-10) 공주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 운영 특성

- 공주시와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가 협력하여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공간을 관리·운영 중임
- 자연재료(나무, 돌, 흙 등)를 활용한 조형물과 설치미술 작품을 숲 곳곳에 배치하여 '자연 속 열린 미술관'을 구현함
- 작품은 자연의 소멸 주기에 따라 철거되고,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으로 교체되는 순환형 운영구조를 가짐
- 비엔날레 기간(8~11월)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개방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방문 비율을 차지함
- 성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로 운영되고, 관람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됨

(3) 기타 공간조성 사례

▣ 치유의 숲

- 치유의 숲은 산림청이 조성·운영하는 대표적인 산림복지 공간으로, 숲이 지닌 다양한 요소(피톤치드, 경관, 햇빛, 소리 등)를 활용하여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공간임
- 이 공간은 산림치유센터, 테마형 치유 숲길, 전망대, 데크 및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치되어 호흡명상, 기체조, 숲 치유 걷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 숲속도서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오동숲속도서관’은 2023년 6월 개관 이후 자연친화적이면서 조형미가 뛰어난 공공문화시설로 주목받고 있음
- 기존 목재 파쇄장 부지를 활용하여, “숲속 쉼터에서 책을 읽는 경험”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자연 속 도서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서울시와 성북구는 ‘공원 내 책 쉼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며, 연면적 431㎡ 중 실내 도서관은 약 260㎡ 규모임. 장서는 약 1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여유로운 열람 환경을 제공함
- 이용 현황을 보면, 평일 평균 479명,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이 방문(머니투데이, 2024.9.12.)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층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이 다수를 차지함
- 도서관의 운영은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에서 작은도서관 형태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숲속도서관과 연계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생태 프로그램,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오동근린공원 내 무장애 숲길,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길 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세대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음



서울 오동숲속도서관

자료) 김미선(2023.5.3.)

(그림 3-11) 서울시 오동숲속도서관

2) 복합문화공원 사례

- 최근 도시공원은 단순한 자연 감상이나 휴식의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여가·커뮤니티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시민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일상 속에서 창작, 학습, 치유,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공 체류형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아직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 또는 생활SOC 연계형 공원 조성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음
- 이는 도시공원의 기능이 단순 녹지·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수용하는 다층적 생활 인프라로 재정립되고자 하는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음
- 대청공원을 대상지로 복합문화공간을 검토한 선행연구로는 2023년 김해시의회 알뜰살림연구회의 「김해시 공유재산 활용방안 연구」가 있음
 - 대청공원을 김해시립장유도서관, 기후변화테마공원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도시공원 환경을 개선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체험시설을 결합한 복합 체험공간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어린이 역사 놀이공원 조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복합문화공원 구상 및 사례에 보훈 테마를 접목한 공간 조성 사례를 함께 검토함

(1) 용산어린이정원

□ 개요

-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도심 속 복합문화 공원으로,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부지를 재생한 대표적인 녹지 전환형 도시 공원임
- 2023년 5월 임시개방된 이 정원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누리는 열린 자연 공간’으로, 놀이·학습·휴식이 가능한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설계되었음

□ 공간구성

- 용산어린이정원은 장군숙소 지역,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스포츠 필드로 구성됨
- 장군숙소 지역
 - 과거 미군 장군 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홍보관’, ‘전시관’, ‘용산서가(도서관)’, ‘이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됨
 - 전시관에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개최되며, 용산서가에서는 어린이와 일반 방문객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됨.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
-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 과거 미군 야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약 17,000m²의 잔디마당으로 조성되었으며, 플라타너스 가로수길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로 도심 속 치유·휴식 공간을 구현함
 - 전망언덕에서는 용산 일대 주요 랜드마크(남산, 국립중앙박물관 등)를 조망할 수 있음
- 스포츠 필드
 -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축구장으로 조성.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도 병행됨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4.25.)

(그림 3-12) 서울시 용산어린이정원 조감도

(2) 복합문화공간 가칭 ‘정약용 공원’

□ 개요

- 남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정약용도서관과 경춘로 사이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를 복개해 그 상부와 주변 토지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길이 594m, 폭 50~80m 규모(약 1만 8,000평)로 조성됨(이기민, 2025.2.5.)
-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임(김영식, 2025.2.5.)

□ 주요시설

- 철도 복개부 공원화 및 사계절 휴식을 위한 실내 정원
- 정약용 아카데미 운영
- 청년 창업 공간 설치



자료 김도윤(2025.2.5)

(그림 3-13) 남양주 도심 연결 입체 복합공원 조감도

(3) 부산시 민간정원 ‘F1963’

▣ 개요

○ F1963은 부산 수영구 옛 와이어 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민간 주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예술·시민·자연이 공존하는 문화공장으로 재탄생함

○ 주요 특징

- 기존 산업시설 재생: 공장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중정, 투명 파사드 등 현대적 리노베이션을 통해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함
- 예술·자연·일상 복합: 공연장(석천홀), 전시장(F1963 스퀘어), 도서관(F1963 라이브러리), 서점, 커피, 비어펍, 플라워숍 등 다기능 복합 구성
- 365일 운영형, 시간대별 프로그램 분산 배치: “낮+저녁+밤” 문화공장 컨셉으로 시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수용함
- 산책·사색·녹지 융합형 디자인: 대나무숲, 유리온실, 수련가든 등 친환경 녹지공간 확보함
- 문화재생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오픈스퀘어, 음악회, 비엔날레 전시 등 시민 참여형 문화 활동으로 복합문화공간 전환 유도함

□ 공간구성

○ 예술·전시 공간

- F1963 스퀘어: 대형 전시장으로, 미술 전시, 비엔날레, 시민 참여형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림
- 석천홀: 공연장으로 활용되며, 클래식, 재즈, 독립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됨

○ 지식문화 공간

- F1963 라이브러리: 예술·디자인 중심 전문서적과 커뮤니티 중심 도서로 구성된 특화 도서관
- YES24 중고서점: 대중적 콘텐츠 소비 공간으로 독서와 휴식을 결합함

○ 일상형 상업·커뮤니티 공간

- 테라로사 카페, 맥주 펍, 플라워숍, 베이커리 등 일상적 소비 활동과 결합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일상성과 문화성이 동시에 구현됨
- 야외 오픈스퀘어: 음악회, 마켓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열린 광장

○ 자연·녹지 공간

- 대나무숲길, 유리온실, 수련정원 등을 배치하여, 산업시설의 강한 이미지 속에서도 자연 친화적 사색 공간이 확보됨
- 외부 산책 동선은 기존 공장 레이아웃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조경 설계가 접목되어 있음



자료) F1963(2018.7)

(그림 3-14) 민간정원 F1963 공간구성

3) 시사점

▣ 복합적 기능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 전략

- 산림형 사례(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숲속도서관,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 서는 자연 그 자체를 매개로 한 교육·예술·치유·생태체험 기능이 중심이 되 며, 인공구조물보다 숲과 지형을 활용한 공간설계가 강조됨
- 복합공원 사례는 놀이·학습·창작·참여·소비가 융합된 공간으로 구성되며, 문 화기반시설과 자연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함
- 대청공원은 산림구역과, 문화시설 및 광장구역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두 유 형의 복합성을 융합하여 ‘자연 기반 체험+일상 체류형 문화공간’이라는 이 중 기능 수행이 가능함

▣ 공간의 장소성 재해석과 자원의 창의적 활용

- 연미산, 오동숲속도서관, F1963 사례 모두 기존 자원의 의미와 구조를 살 리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을 채택함
- 특히 F1963은 산업시설을, 오동숲속도서관은 폐자재 파쇄장을 복합문화공 간으로 전환하여, 낡은 시설을 ‘새로운 체류형 콘텐츠’로 전환하는 사례임
- 대청공원의 기존 지형, 산림, 노후 시설도 철거가 아닌 재생·전환 방식으로 설계 시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 다양성과 상시 운영 기반 확보

- 유아숲체험원은 연령 맞춤형 프로그램이 중심이며, 치유의 숲은 전문지도 사 운영, 오동숲속도서관은 사계절 열람 서비스, F1963은 다양한 문화 콘 텐츠를 제공함
- 이는 대청공원 또한 기존 시설과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을 연계하여 정기· 상시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간의 체류성과 재방문 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지역성과 시민참여 기반 공공성 강화

-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은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정약용공원은 청년창업공간, F1963은 시민참여형 마켓·공연이 운영되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음
- 대청공원 역시 장유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커뮤니티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됨
- 특히 김해시의회 알뜰살림연구회(2023) 공유재산 활용 연구에서 제안된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어린이 역사 놀이공원’ 구상은 지역의 역사·정체성과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됨
- 따라서 보훈을 단순한 추모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김해의 역사·정체성과 연계한 역사·보훈 교육 콘텐츠로 확장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대청공원은 단순한 여가·휴식 기능을 넘어, 역사·보훈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김해형 학습·체험형 콘텐츠를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임

4 | 종합분석

1) 종합 시사점

▣ 인구 및 유동인구 변화의 공간적 시사점

- 장유2동은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정주 확대에 의한 것임. 이로 인해 건강관리, 여가,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해시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형식 교육, 안전 활동 공간 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메가병원 정류장 상권은 평균 12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반면, 대청공원 및 도서관 인근은 3천 명 이하로 이용자 차이가 큼. 공간 간 유동 흐름이 단절되어 있어 이를 연결·유도할 수 있는 공간 재구성 전략이 필요함

▣ 공원 이용 행태 기반 공간 기능 재구성 필요성

- 시민 인식조사 결과 대청공원 이용자 다수는 ‘산책·운동’ 중심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놀이시설이나 문화이벤트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임
- 특히, ‘불편 사항’으로 시설 노후화, 공간 단절, 접근성 부족이 다수 지적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복합 기능 공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보여줌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이 실제로는 연결해 있으나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인해 보행 연계가 단절되어 있어, 통합적 이용을 위한 동선 정비 및 시각적 연계 강화가 필요함

▣ 공간 구조 개선 및 연계 활성화 방향

- 공간 통합 및 중심성 강화
 - 공원 내부 공간은 기능별로 구획되어 있으나, 동선 및 기능 간 단절로 인해 전체적인 통합성과 활용성이 저조함
 - 특히 공원 중앙에 위치한 산림은 동·서측 공간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공원과 중앙광장 간에는 지형적 단차와 도로에 의한 분절이 존재하여 이용자 이동에 불편을 초래함

- 향후 공간 재구성 시, 산림부의 공간 활용 확대와 보행 동선 재설계를 통해 공원의 중심성과 공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행 연결성 및 이동편의 개선

- 공원과 광장 간의 단차 문제는 고령자, 유아 동반 가족 등 보행 약자에게 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행교 또는 경사형 연결 통로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공간 재구성 및 체류 유도 요소 도입

- 중앙광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 광장, 쉼터, 놀이공간 등 체류 중심 공간으로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 내부에도 이용자가 머무를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시간 및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생활권 단위 연계축 조성

- 장유도서관-기후변화테마공원-대청공원-중앙광장-수변공원-젤미공원-장유스포츠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여가축을 생활권 단위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청공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 여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 **복합문화·여가 공간으로의 발전 방향**

- 앞선 사례에서 산림 구역을 단순한 녹지 보존 공간이 아닌, 교육·예술·치유를 아우르는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 점, 도시 내 유희부지 및 공공 공간을 전환해 다양한 세대의 일상적 체류, 활동,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한 점에서, 대청공원의 복합문화공간 전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함
- 따라서 대청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전환이 필요하며, 세대 맞춤형 공간 구성과 콘텐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김해의 역사·정체성과 연계한 교육·체험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김해형 학습·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성 강화와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성 확대라는 목표에도 부합함
- 공원 내부 기능 재편과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단순 조경·운동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계절별 행사·축제·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주변 수변공원, 장유스포츠센터, 켈미공원 등과의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메가병원 상권과의 생활밀착형 연계축을 조성해 광역 생활권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공간 개선과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활성화 전략 필요

- 시민 인식조사에서 ‘잘 몰라서 방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어, 공간 개선과 함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시설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및 홍보·지역 연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함
 - 시설 인프라 조성: 노후시설 보수, 보행 접근성 향상, 세대별 맞춤형 공간 재배치
 -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계절별 행사, 주민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 홍보·지역연계 강화: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확대, 주변 상권·문화시설 연계 이벤트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도출

□ SOWT 분석

- 강점(Strengths)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은 장유2동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 공공 오픈 스페이스로, 접근성이 우수함
 -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도보 15~2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하여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발전 가능함
 - 공원 내 장유도서관, 기후변화테마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근 주변 여가공간(수변공원, 켈미공원, 장유스포츠센터)과 연계 가능성 높음
 - 산림, 광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간 자산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김해시 내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미래 수요 기반이 풍부함

○ 약점(Weaknesses)

- 공원 내 공간이 기능별로 단절되어 있어 기능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함
- 지형 단차로 인해 고령자·보행약자의 접근성이 낮고 안내체계나 편의시설도 미비함
- 시설 노후화 및 문화·놀이·참여형 공간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함

○ 기회(Opportunities)

- 인근 고밀도 공동주택단지와 상업지구가 혼재하여 다양한 세대의 수요층 확보가 가능함
- 비행식 교육, 체험활동,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주변 생활축(수변공원, 스포츠센터 등)과의 보행축 정비를 통한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 위협(Threats)

- 인근 공원 간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함
- 주차 공간 부족, 자전거 접근성 낮음 등 접근 수단의 제약이 있음
- 예산 제약 및 이해관계자 조율 문제로 인해 대규모 공간 재편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전략도출

○ SO전략(강점-기회 전략): 복합문화·여가공간으로 기능 재정립

- 지역 내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생활밀착형 여가 네트워크 구축
- 세대별 맞춤형 공간 구성과 계절·테마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적 방문 유도
- 지역 스토리를 반영한 차별화 콘텐츠 개발

○ WO전략(약점-기회 전략): 기능 단절 해소 및 공간 활용성 제고

- 공간 간 경계 완화를 통해 유기적 연결성 확보
- 노후화된 공간은 새로운 기억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 주민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 ST전략(강점-위협 전략): 공간 간 연계 강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

- 공원-광장-주변 여가공간 간 보행 네트워크 확충

- 체험형·스토리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 매력도 향상
- 생활권 공간축 조성으로 중심지 기능 재정립
- WT전략(약점-위협 전략): 구조적 한계 보완 및 기반시설 확충
 - 보행약자 친화시설·공영주차장 확충
 - 공원-광장 간 연계 강화 및 산림부 매개 공간 설치
 -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및 주변 상권·문화시설과 공동 이벤트 추진

<표 3-30> SWOT분석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SWOT	다양한 세대 수요층, 비형식 교육·체험 수요 증가, 생활권 네트워크 확장 가능	공원 기능 유사성, 교통 편의 부족, 예산·조율 지연 우려
강점 (Strengths)	(SO 전략) 복합문화·여가공간으로 기능 재정립	(ST 전략) 공간 간 연계 강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
접근성 우수, 다양한 공간 자산, 아동·청소년 인구 기반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연계 생활밀착형 여가 네트워크 형성 • 세대별 맞춤형 공간·계절·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억·감성을 반영한 스토리형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광장-여가공간 보행 네트워크 강화 • 차별성 확보 위한 체험·스토리형 공간 전환 • 생활권 중심 기능 재정립
약점(Weaknesses)	(WO 전략) 기능 단절 해소 및 공간 활용성 제고	(WT 전략) 구조적 한계 보완 및 기반시설 확충
공간 단절, 접근성 저하, 시설 노후화, 문화·참여 기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경계 완화로 유기적 연결성 강화 • 노후 공간 재구성 및 지속가능 콘텐츠 개발 • 주민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 확충 등 편의 인프라 보강 • 산림부 매개 공간 설치로 동서축 연결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상권·문화시설 공동 이벤트 추진

IV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 이용 활성화 방안

1 | 기본구상

1) 기본 방향

- ▣ 도시와 세대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 조성
 - 대청공원을 장유2동의 상징적 거점으로 재정립
 - 도서관, 광장, 공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화·배움·쉼’의 복합 공간 구성

- ▣ 생활권 중심의 보행형 그린 네트워크 구축
 - 보행 친화적인 연결로 조성으로 시설 간 접근성 및 연계 강화
 - 단절된 도시 녹지를 연결하여 생활권 내 지속가능한 녹지 환경 마련

- ▣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일상형 문화공원 실현
 - 다양한 연령층이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
 - 공원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방문 목적을 다변화해 공공성 제고

2) 비전 및 목표

- ▣ 비전: 기억을 품고, 세대가 연결되며, 일상이 머무는 대청문화공원
 - 기억: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담아, 장소에 정체성과 이야기를 부여하는 공간
 - 연결: 사람과 사람, 세대와 공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공간
 - 일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린 공간

- ▣ 목표
 - 생활권 내 공공거점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
 - 대청천 수변공원-대청공원(장유도서관)-중앙광장-젤미공원(장유스포츠센

터)을 연결하는 생활형 녹지축 구축

- 기억을 담고 모두가 즐기는 복합문화공원 조성
 - 보훈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테마 공간과 세대별 맞춤형 체험 공간을 결합하여, 공원의 장소성과 이용 경험을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형 문화활동 기반 조성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지속 운영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기반 마련

3) 추진전략

▣ 전략 1. 보행자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

- 목표: 생활권 내 공공거점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
- 추진 전략
 - 1-1. 중앙광장 리모델링
 - 중앙광장을 리모델링하여 활용도 강화
 - 1-2. 녹지 연결로 조성
 - 주요 거점을 잇는 보행축을 정비하고, 걷고 싶은 도시환경으로 개선

▣ 전략 2. 복합문화공원 조성

- 목표: 기억과 체험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원 공간 구성
- 추진 전략
 - 2-1. 복합문화공원 조성
 - 복합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원 공간 구성
 - 2-2. 숲체험·휴양 공간 조성
 - 유아 숲 체험 공간과 자연 휴식 공간을 구성

▣ 전략 3. 일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문화활동 기반 조성
- 추진 전략

3-1. 대청ON 프로그램 운영

→ 시설들을 연계한 일상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2. 보훈ON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보훈 체험존과 연계한 세대 공감형 보훈 콘텐츠 운영

3-3. 숲에ON 프로그램 운영

→ 숲체험장 및 산림휴양 공간을 활용한 생태문화 체험 활성화

비 전	<p>기억을 품고, 세대가 연결되며, 일상이 머무는 “대청문화공원”</p> <p>기억: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담아, 장소에 정체성과 이야기를 부여하는 공간 연결: 사람과 사람, 세대와 공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공간 일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린 공간</p>		
목 표	<p>생활권 내 공공거점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p>	<p>기억을 담고, 모두가 즐기는 복합문화공원 조성</p>	<p>시민과 함께하는 일상형 문화활동 기반 조성</p>
추 진 전 략	<p>보행자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p>	<p>복합문화공원 조성</p>	<p>일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p>
	<p>1-1 중앙광장 리모델링</p>	<p>2-1 복합문화공원 조성</p>	<p>3-1 대청ON 프로그램 운영</p>
	<p>1-2 녹지 연결로 조성</p>	<p>2-2 숲체험·휴양 공간 조성</p>	<p>3-2 보훈ON 프로그램 운영</p>
			<p>3-3 숲에ON 프로그램 운영</p>

(그림 4-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 | 공간구상

1) 공간구상 계획

- 도시 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열린 공공장소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청공원을 중심으로 켈미공원, 중앙광장, 대청천 수변공원을 잇는 보행 중심 녹지축을 형성하여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체험 활동을 활성화함

▣ 보행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청천-수변공원-대청공원(장유도서관)-중앙광장-켈미공원(장유스포츠센터)을 잇는 단절된 보행축을 연계하여, 녹지축 중심의 생활권 공공 공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함
- 중앙광장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단절된 광장을 체류형 잔디광장으로 재구성하고, 도시 내 부족한 녹지와 여가 공간을 확충함



자료) 구글어스(2025.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 도심 녹지축 연결(안)

□ 복합문화공간 구역

- 대청공원 내 복합문화공간 구역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머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전시, 공연,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

□ 숲체험·휴양 공간 구역

- 숲체험 공간
 - 자연과 학습이 결합된 안전한 숲 체험 환경 조성
 -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을 고려한 야외체험 학습장 설치
 - 자연 체험형 교육 공간 마련
- 산림휴양 공간
 -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도심형 산림 휴식 공간 구성
 - 그늘 쉼터, 산책로 등 휴게 중심 기반시설 확충

□ 그린문화 광장 구역

- 도심 속 열린 거점 공간으로서 중앙광장은 공원, 도서관, 주변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활형 그린문화 광장으로 조성



자료) 구글어스(2025.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3) 공간구성 계획

3 | 전략별 추진 계획

전략 1. 보행자 중심 그린 네트워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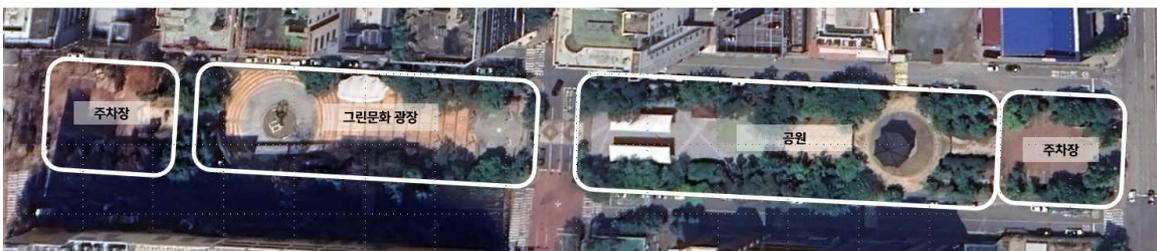
1-1. 중앙광장 리모델링

▣ 사업개요

- 목적: 중앙광장을 재정비하여, 열린 문화광장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 위치: 김해시 장유2동 중앙광장
- 규모: 길이 350m, 면적 12,200㎡
- 주요내용: 잔디광장 조성, 바닥 포장 정비, 초화류 식재 등

▣ 사업내용

- 주차장 정비
 - 광장 양끝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 면적은 유지하되, 노후 포장 상태 개선
- 그린문화 광장
 - 서측에 위치한 기념비는 존치하며, 그 주변으로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무르고 소규모 행사나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
- 공원구역
 - 광장 동측의 기존 녹지공간은 전체적으로 보존하되, 바닥 포장 정비, 계절 초화류 식재, 산책로 정비 및 벤치·쉼터 보강을 통해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자료) 구글어스(2025.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4) 중앙광장 현 사진 및 공간 구성



(그림 4-5) 중앙광장 조감도

1-2. 녹지 연결로 조성

□ 사업개요

- 중앙광장, 대청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 녹지축을 조성하여 도심 내 단절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민의 공원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 강화
- 위치: 대청공원-중앙광장(서쪽)
- 주요내용: 도로 단절 구간 위로 녹지형 입체 보행로(보행교)를 설치

□ 사업내용

- 녹지연결로 설치
 - 구간: 대청공원-중앙광장(서쪽)
 - 내용: 도로로 인해 단절된 구간에 입체형 녹지연결로(보행교) 설치

□ 사례

-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 사이의 대형 보행교 설치
- 서울시 노원구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 사이 친환경 녹지연결로 조성



자료) 조성 위치-구글어스지도(2025.2.4.) 활용 / 공중정원 조감도-김점임(2024.9.23.)

(그림 4-6) 녹지연결로 조성 위치 및 사례

전략 2. 복합문화공원 조성

2-1. 복합문화공원 조성

□ 사업개요

- 목적: 활용도가 낮은 대청공원 동측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 이용도를 높이고, 교육·문화·휴식을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2동 대청공원 동측 부지
- 주요내용: 어린이 보훈체험관, 복합문화공간, 잔디광장, 주차장 등 조성

<표 4-1> 복합문화공원 조성 시설

구분	주요기능
보훈ON парк (어린이 보훈 체험시설)	보훈 테마의 어린이 체험공간 조성
대청ON 센터 (복합문화공간)	다목적 문화시설 및 공영주차장
야외공간	운동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

□ 사업내용

- 보훈ON парк 조성: 보훈 테마 기반의 어린이 체험관 조성
 - 보훈ON парк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국가를 위한 희생과 용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복합 체험형 공간
 - 가야의 전사 문화, 김해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 그리고 현대적 보훈 직업군을 융합하여 지역성과 교육성을 동시에 확보

<표 4-2> 보훈ON파크 조성 테마

테마명	콘텐츠
가야의 전사들	가야 갑옷 입기 체험, 병사 놀이존, 창 만들기
김해 의병과 독립운동가들	김해 영웅 스토리존, 태극기 미션, AR독립운동 체험
고마운 사람들	소방·경찰·군인 직업 체험, 영상 편지 쓰기

- 사례: 서울시 용산어린이정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 전이 공간, 전시·체험 공간, 영상체험 공간으로 구성
 - 전시·체험 공간은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소방관 테마로 구성



나라사랑 캠프(육군)

나라사랑 바다(해군)

나라사랑 소방서(소방관)

자료) 국가보훈부 보도자료(2024.6.3.)

(그림 4-7)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 대청ON 센터 조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및 공영주차장 신설

- 창의·디지털 중심의 복합문화 플랫폼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
- AI·디지털 기반의 비형식 학습공간을 통해 김해형 미래역량 학습 거점 마련

<표 4-3> 대청ON센터 구성

구분		주요 기능 및 설명
지상	창의기술 자기주도 학습존	AI 학습 큐레이션,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형 학습 콘텐츠 제공
	협업형 창작 워크숍 & 스튜디오	소그룹 워크숍,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실습 공간
	열린 시민문화 공간	북카페형 라운지, 미니 갤러리 등 일상 속 소통과 창작 공유 공간
지하	공영주차장	공영 주차장

- 사례: TUMO Center for Creative Technologies (아르메니아 외)
 - 청소년 대상 창의·디지털 역량 중심의 비형식 학습센터
 - 공간구성: AI 학습 플랫폼, 자기주도형 러닝존, 워크숍 스튜디오, 미디어 제작실 등

- 운영방식: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TUMO Path) 기반으로 자율학습과 전문 멘토링 병행



자료) <https://tumo.org/whatistumo> (검색일: 2025.5.24.)

(그림 4-8) 아르메니아 TUMO(창조기술 센터)

○ 야외공간

- 주차장: 기존 야외주차 공간(현 공원관리소 부지)을 활용하여 주차장 확대 조성
- 운동시설 및 잔디광장: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규모 체육시설(족구장) 설치 및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잔디광장 조성
- 산책로: 대청ON센터와 보훈ON 파크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공원 산림구간 내에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순환 동선 확보



(그림 4-9) 대청공원 복합문화공원 구역 조감도



(그림 4-10) 보훈ON парк 조감도



(그림 4-11) 야외 부분 조감도

2-2. 숲체험·산림휴양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목적: 자연 속에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숲에서 휴식·문화·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과 ‘산림휴양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숲 체험문화 공간 조성
-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2동 대청공원 산림부문
- 주요내용: 어린이 숲체험원, 산림휴양 공간 조성

▣ 사업내용

○ 어린이 숲체험원

- 자연친화형 놀이공간 조성: 기존 인공놀이터를 대체하여 자연 지형과 목재, 암석, 흙 등을 활용한 생태 놀이 환경 조성
- 모험·창의 놀이시설 설치: 밧줄 놀이, 원목 구조물, 언덕 미끄럼틀 등 어린이의 상상력과 신체 발달을 유도하는 구조물 도입
- 생태 관찰·탐사존 운영: 나무·곤충 관찰, 계절별 자연변화 체험 프로그램 등 생태 학습 연계

○ 산림휴양 공간 조성

- 자연미술 전시구역: 산책로 주변에 설치미술, 환경 조각, 자연 재료로 만든 예술품을 배치해 시각적 흥미 제공
- 숲속 열린 휴식처 조성: 데크쉼터, 나무벤치 등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공간 확보

○ 산림휴양 공간

- 자연미술 작품 전시: 숲속 곳곳에 자연 친화적 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
- 숲속의 열린공간 마련: 방문객이 편히 쉬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자료)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검색일: 2025.2.6.

(그림 4-12) 공주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전략 3. 일상형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3-1. 대청ON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운영 공간: 대청ON 센터 실내외 공간 및 중앙광장
- 주요 대상: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민
- 주요 프로그램
 -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AI 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 제공 (진단-목표-성취 피드백 순환)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워크숍: 미디어 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 제작, 그래픽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작 교육
 -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클리닉, 진학 컨설팅, 포트폴리오 제작 워크숍 등 실질적 진학 지원
 - 디지털 창의융합 교육: 디지털 기반 미래형 체험 학습 교육
 - 시민참여형 전시 및 공유회: AI 학습 결과물 및 시민 창작물을 공유하는 ‘성과 발표회’, ‘미니 전시회’ 운영
 - 지역 기반 연계 프로그램: 도서관, 지역 학교 등과 연계한 학습협력 프로젝트
 - 시민마켓·문화행사: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민마켓(로컬푸드, 핸드메이드, 청년 창업팀 등)과 연계해 체험부스·문화공연 운영

▣ 사례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창의 융합체험 융·프·라



자료) 왼쪽-이원근(2024.5.8.) / 오른쪽-경기대학교 블로그, 검색일: 2025.8.19.

(그림 4-13)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기반 창의융합체험 캠프

3-2. 보훈ON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공간: 보훈ON 파크(어린이 보훈 체험공간 및 주변 산책로 등)
- 주요 대상: 유아·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시니어 세대
- 주요 프로그램
 - 지역 역사 연계 보훈 콘텐츠: 김해 의병과 독립운동가 관련 전시·체험 콘텐츠 운영 (AR 독립운동 체험, 태극기 미션 등), 가야 병사 되어보기 등
 - 세대 공감형 프로그램: 어린이와 시니어가 함께 참여하는 헌화 활동, 추모의 길 산책, 영상편지 제작 등
 - 생활 속 직업 체험 교육: 소방·경찰·군인 등의 공공 안전직을 주제로 한 역할놀이 및 체험 활동
 - 평화 교육과 인성교육: 평화 타임캡슐, 감사편지 쓰기, 가족 참여형 ‘보훈의 날’ 캠페인 등

3-3. 숲에ON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공간: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휴양공간 전역
- 주요 대상: 유아, 어린이, 가족, 생태활동가, 일반 시민
- 주요 프로그램
 - 유아 생태감수성 프로그램: 자연물 놀이, 숲 관찰일지 쓰기, 나뭇잎 도장 만들기 등 감각 중심 놀이
 - 시민 생태 워크숍: 도시숲 식물 관찰, 생태드로잉, 자연예술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 지역 작가·생태교육가와 시민이 함께 주제 및 콘텐츠 기획
 - 정원 가꾸기 활동: 시민 참여형 가든 프로젝트(시민정원사 양성, 정원 콘테스트 개최 등)
 - 자연 속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숲속 전시회,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야외 전시작품 만들기, 숲 명상 워크숍 등

4 | 추진로드맵

1) 단기 과제(2025년~2027년)

(1) 인지도 제고

- 시민 인식조사 결과, 대청공원 및 중앙광장을 방문하지 않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가 2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
- 이는 물리적 시설 개선 이전에 공원과 광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줌
- 따라서 시설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 기간(2026~2027년) 동안,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공원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연계 협력 기반 마련

- 대청ON 프로그램 시범 운영: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청ON센터를 학습·창작 거점으로 인식하도록함
 - AI/SW 기반 창의캠프: 지역대학(인제대, 김해대 등)과 인근 초·중·고교를 연계한 창의·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대학 강의실을 활용하되, 향후 대청ON센터를 거점공간으로 활용
 - 콘텐츠 제작 워크숍: 대청공원을 배경으로한 청소년·청년 대상 영상, 디자인 상품 제작 등
- 보훈ON 프로그램 운영: 대청공원을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학습 공간으로 전환함
 - 야외형 보훈 체험프로그램: 중앙광장과 공원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보훈 인형극, 보훈 가족캠프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보훈 이야기 마당: 보훈가족 및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구술형 토크·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
- 숲에ON 프로그램 운영: 산림구역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탄소중립 이미지 강화함
 - 숲속 독서캠프: 장유도서관과 연계한 숲속 독서 프로그램 운영
 - 탄소중립 청소는 캠프: 청소년·청년 대상 환경·기후변화 대응 체험 프로그램

- 광장 프로그램 : 중앙광장의 일상적 활용도를 높이고, 대청공원과 연계된 복합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함
 - 시민마켓 및 문화행사: 지역 청년 창업팀, 로컬푸드·핸드메이드 마켓 운영과 함께 음악·댄스 등 청년 공연팀의 문화행사를 개최
 - 성과 공유 전시: 프로그램의 결과물 전시회 및 시민 참여형 갤러리 운영

■ 공간 홍보 강화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SNS 챌린지, 숏폼 영상 제작, 시민 참여 후기 공유 등을 통해 젊은 층 중심의 공감대 형성
 - 지역 언론, 김해시 공식 홈페이지·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도 및 홍보
 -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재참여를 유도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 도입
 - 소규모 시민정원 아이디어 공모: 시민이 직접 제안·설계한 정원을 공원 내 시범 조성
 - 참여형 프로그램 공모: 시민 동아리·청년단체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운영비 일부 매칭 지원
 - 프로젝트형 제안 공모: 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 제안은 실제 사업화
 - 성과 확산: 우수 아이디어·프로그램은 광장 전시, SNS 홍보,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지속 활용

(2)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 본 구상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해야 함
 - 현재 대청공원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전체 부지 대비 시설물 설치율(시설율)이 40% 이하로 제한됨
 -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복합문화시설, 체험공간, 스마트 학습존 등 다양한

- 콘텐츠와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공간 활용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대청공원의 법적 성격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문화공원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 다양한 시설 도입이 가능함
- 이와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됨
 - 기본구상안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계획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김해시, 경상남도,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한 재원 확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공간분석과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해야 함

▣ 세부 추진 과제

-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 관계기관 협의(김해시, 경상남도 등)
- 예산 확보 및 국도비 공모 준비
- 도시관리계획 변경(근린공원 → 문화공원) 등 행정 절차 이행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2) 중장기 과제(2028년 이후)

- 중장기 단계에서는 본 구상안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 공사와 콘텐츠 구축, 그리고 정식 개관 및 운영 체계 확립을 차례로 진행해야 함
- 이는 단기·초기 단계에서 마련한 인지도 제고 및 행정적 기반을 토대로 실질적인 공간 변화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요구됨

▣ 기반 조성 공사

- 본격적인 공간 재구조화에 착수하는 단계로, 구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시설을 조성함

- 중앙광장 구역: 우선적 리모델링 대상지로 설정하여 광장의 기능과 상징성을 강화
- 산림형 체험구역: 유아숲체험원, 숲속도서관 등 자연체험 기반시설 조성으로 교육·체험 기능 확충
- 공원 전역: 기존 노후 시설 재정비와 보행로·휴게시설 개선 등 전반적 환경 개선 추진

▣ 콘텐츠 구축 및 시범 운영

- 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내부 콘텐츠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함
 - 시설 내부 콘텐츠 구축: AI 학습존, 체험관, 스마트 라운지 등 복합문화 기능 구현
 - 운영 인력 확보 및 매뉴얼 수립: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
 - 지역기관 연계 협약 체결: 대학·도서관·문화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프로그램 운영

▣ 공식 개방 및 시민참여 활성화

- 공원의 공식 개방과 함께 시민 참여형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 본격 운영 개시: 전 시설의 공식 개방과 프로그램 정례화
 - 문화 캠페인 및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 확산
 -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반영: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 추진

<표 4-5>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추진과제	세부내용
단기 과제 (2025년~ 2027년)	인지도 제고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 도시관리계획 변경(근린공원 → 문화공원) -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 관계기관 협의, 예산 확보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중장기 과제 (2028년 이후)	조성 공사	- 대청공원, 중앙광장 리모델링
	콘텐츠 구축 및 시범 운영	- 내부 콘텐츠 구축 - 운영 인력 확보 및 운영 매뉴얼 수립 - 지역기관 연계 협약 체결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공식 개방 및 시민참여 활성화	- 문화 캠페인 및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반영



(그림 4-14) 사업전체 구상(안)

V 결론 및 제언

1 | 결론

1)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김해시 장유2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내 공공공간의 구조적 재편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복합문화여가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음
- 연구는 단순한 인구변화, 이용행태, 생활권 구조, 시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원의 이용 가치와 도시 내 거점성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우선, 인구 구조 분석 결과, 장유2동은 45세 이상 중장년·고령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아동·청소년 인구 역시 김해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대 간 복합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유동인구 분석에서는 인근 메가병원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인구가 확인되었으나, 정작 대청공원 및 장유도서관 인근은 하루 평균 3천 명 이하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는 등 공간 간 흐름의 단절 현상이 드러났음
 - 공원 이용행태 분석과 시민인식조사 결과, 현재 대청공원은 ‘산책’과 ‘운동’ 중심의 기능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놀이·문화·체험 요소의 부족, 시설 노후화, 접근성 불편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하였음
 - 이는 현재의 공원이 단일기능 중심에서 더 이상 시민의 복합적 삶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한계로 분석됨
-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음
 - 비전: 기억을 품고, 세대가 연결되며, 일상이 머무는 대청문화공원
 - 전략 1. 보행자 중심의 녹지 네트워크 조성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청천 수변공원, 장유스포츠센터, 젤미공원 등과의 연결을 통해 생활권 녹지축 기반의 공공 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이동 흐름과 체류 활성화를 유도함
- 전략 2. 복합문화공원 조성
 - 공원의 기능을 단순한 휴식 중심 공간에서 문화, 교육, 체험이 결합된 다기능 공공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대청ON 센터, 보훈ON 파크 등 특성화 공간을 구성하여 공원 내 공간 구조를 재편함
- 전략 3. 일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청년 대상 AI 기반 학습, 콘텐츠 제작 워크숍, 진로 지원 등 미래형 프로그램부터, 유아·초등·시니어 대상 역사 체험, 세대 공감형 보훈 활동, 자연 예술과 생태 감수성 교육 등 시민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이 일상의 기억과 활동이 축적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김해시 장유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대상으로, 단순한 경관 개선이나 물리적 시설 보안을 넘어, 일상 속 체류형 복합공간으로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공원의 이용 실태, 시민 인식, 유동인구 등 다각적인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세대 간 통합과 지역성과 기억의 회복, 문화·여가 콘텐츠 수용이라는 통합적 비전을 제안하였음
- 또한 시민참여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AI 학습, 디지털 콘텐츠 제작, 생태 치유 프로그램 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상형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음
- 보훈·자연·미래교육이라는 테마에 기반한 공간-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장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거점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 다만, 본 연구는 기본구상 수준의 정책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 첫째, 계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구조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미흡하였음. 공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시민이 기획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실행전략은 한정적으로 제시되었음
 - 둘째, 구체적 실행계획과 후속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시설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도입 이후의 모니터링 체계,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 재원 확보 및 운영주체 설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단계에서의 보완이 필요함
 - 셋째,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홍보전략이 필요함. 시민이 공원을 인식하고 찾아오도록 만드는 브랜딩, 지역 소상공인과의 연계, 온라인 홍보채널 등 실질적인 접근성 향상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넷째, 공원 및 산림구역 내 생태 보존 계획, 단계별 실천 로드맵, 민·관 협력 운영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은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다루지 못하였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청공원을 단일 기능의 여가공간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기억이 축적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님
- 향후 실행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식과 실행주체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실효성 높은 도시공원 전환 모델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2 | 정책적 제언

- 본 연구는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 공간의 복합문화공간화 및 일상 속 체류 공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였음. 이를 실질적인 실행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이 요구됨

□ 단계별 실천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구조 마련

- 단기-중기-장기로 이어지는 실천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김해시청, 장유도서관, 김해시서부보건소,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과의 다부처·다기관 협력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원 조성 이후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지표를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시민 체감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생활권 단위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청천 수변공원-장유도서관-젤미공원-장유스포츠센터 등 장유2동 생활권 내 주요 거점을 보행축 기반 녹지 네트워크로 연계해야 함
-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공간계획 수립과 단계별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공원 인지도 제고 및 상권 연계 활성화 전략 필요

- 현재 대청공원과 중앙광장의 지역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따라 공원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브랜딩과 랜드마크 요소 도입이 필요함
- 또한, 공원 내 소상공인 협력 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중앙광장에서 생활예술 공연, 문화장터 등 정기행사를 통해 유동인구를 공원 내부로 유입시키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함

■ 시민의 삶과 함께 변화하는 유기적 공원관리 체계 구축

- 공원은 단순히 조성된 ‘완성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유기체적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함
- 특히 대청공원과 같이 도심 속 핵심 오픈 스페이스는 일상 속에서 스며들고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공공 공간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전문가,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 마련이 중요함
- 유아, 청소년, 학부모, 시니어, 인근 상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민 기획단, 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운영협의회, 그리고 이용 실태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 피드백 체계를 통해, 공원은 시대 변화와 시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1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6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1958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231호.
- 국가보훈부 보도자료(2024.6.3.), “어린이 보훈전시관에서 보훈을 체험하세요” 보훈부, 용산어린이정원에 ‘보보의 집’ 개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4.25.),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 김도윤(2025.2.5.), “남양주시 2027년까지 도심 연결 입체 복합문화공원 조성”, 「연합뉴스」.
- 김묘정(2015), “경산지역 도시주거지 오픈스페이스의 이용특성과 공간적, 사회심리적 기능”,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6(5), 143-152.
- 김미선(2023.5.3.), “오두막 같은 아늑함, 월곡산 초입 오동 숲속도서관 개관”, 「내 손안에 서울」.
- 김영식(2025.2.5.), “남양주시, GH와 손잡고 철도 위 콤팩트시티·복합문화공원 조성”, 「일요신문」.
- 김점임(2024.9.23.), “도로로 단절된 녹지, 공중에서 연결 ‘공중정원’ 형성”, 「서울복지신문」.
- 김해시 고시 제2023-1287호(2023.8.31.), “김해시도시계획시설(계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김해시 내부자료(2025).
- 김해시의회 알뜰살림연구회(2023), 「김해시 공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 도시공원 환경 개선 및 어

린이놀이터 조성, 리더스클럽.

머니투데이(2024.9.12.), "'가족과 숲 속에서 책 읽어요'...서울 '공원 내 책쉼터' 만족도 보니".

박영석, 배정환(2024), "도시 오픈스페이스 계획 과정의 시민참여 정책 분석 - 서울, 인천, 광주, 대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52(5), 한국조경학회, pp.1-14.

산림청(2014),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가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산림청.

산림청 도시숲경관과(2024),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 산림청.

이기민(2025.2.5.), "남양주시, GH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경기인저널』.

이원근(2024.5.8.),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창의융합체험 '융프라', 『인천일보』.

조예진, 최정아(2017),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해외 도시 오픈스페이스 표현 경향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8(5), 한국기초조형학회, pp.555-568.

조한솔, 한소영, 조경진(2014). "현대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복지이념 구현양상 및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2(6), 한국조경학회, pp.60-71.

지유리(2023.7.13.).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애들이 제일 좋아한다꿈", 『농민신문』.

최희선, 안소은, 이후승, 송슬기, 이길상(2019).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F1963.(2018.7), "GREEN+ART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Space, C. A. B. E. (2009).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The Real Value of Park Assets. Summary*. C.A.B. Space. p.26.

구글어스 지도, "장유2동", <https://earth.google.com>, 검색일: 2025.2.4.

경기대학교 블로그, "경기대, 306명 지역 미래 인재에게 SW·AI 우수 체험 기회 제공.. 융프라 캠프 성료", https://blog.naver.com/kyonggi_love/223639316113, 검색일: 2025.8.19.

김해시 공식블로그, "대청공원", <https://blog.naver.com/gimhae4you>, 검색일: 2025.6.13.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s://natureartbiennale.org>, 접속일: 2025.7.11.

네이버지도, "장유대청공원", <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4.12.4.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검색일: 2025.2.6.

도시이음 용어사전 홈페이지, <https://www.eum.go.kr/web/in/dc/dcDictList.jsp>. 검색일:2025.1.23.

소상공인365 상권지도, "장유2동", <https://bigdata.sbiz.or.kr>, 검색일: 2025.6.14.

워드클라우드, <https://wordcloud.kr>, 접속일: 2025.1.23.

TUMO 홈페이지, <https://tumo.org/whatistumo>, 검색일: 2025.5.24.

| 부록 |

중앙광장 및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장유 중앙광장과 대청공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장유 중앙광장과 대청공원의 시설 개선과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나아가 김해시의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적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다면 김해시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조사기관: 김해연구원 도시교통환경연구부 담당자: 전현진 (jin22@ghri.re.kr / 055-344-7742)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만(세)	
거주지역	김해시(읍/면/동)				
직 업	① 자영업	② 사무/관리직	③ 전문직	④ 기능직	⑤ 서비스/판매직
	⑤ 농업	⑥ 학생	⑦ 무직	⑧ 기타 ()	

I. 일반적 공원이용 행태

1-1. 김해시를 대표하는 공원을 작성해 주세요. (2개소 까지 가능)

(,)

1-2.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도시공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 ① 거의 매일 ② 주1~2회 ③ 주3~4회 ④ 1개월 1~3회 ⑤ 3개월에 1회
⑥ 6개월에 1회 ⑦ 거의 이용하지 않음 => 1-7로 이동

1-3. 공원을 이용하는 주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1-3-1. 평일 ① 새벽 ② 오전 ③ 점심 ④ 오후 ⑤ 저녁이후 ⑥ 이용하지 않음
1-3-2. 주말 ① 새벽 ② 오전 ③ 점심 ④ 오후 ⑤ 저녁이후 ⑥ 이용하지 않음

1-4. 공원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휴식, 산책 등 ② 운동 ③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④ 환경,생태 체험
⑤ 친목도모 ⑥ 기타 ()

1-5. 누구와 주로 공원을 이용하십니까?

- ① 혼자 ② 영유아 동반 가족 ③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 ④ 친구(동료)
⑤ 이웃주민 ⑥ 반려동물 ⑦ 기타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벤치, 그늘막	①	②	③	④	⑤
광장시설	①	②	③	④	⑤
화장실	①	②	③	④	⑤
주차장	①	②	③	④	⑤
안내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3-10. 장유 중앙광장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을 2개까지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광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 ② 산책로, 조경확충 |
| ③ 휴식공간(벤치, 그늘막 등) 확충 | ③ 주변경관 개선 |
| ④ 문화 이벤트 활성화 | ④ 잔디광장 조성 |
| ⑤ 인근 시설과 연결성 강화 | ⑤ 기타()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대청공원·중앙광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발행 2025년 8월 31일
발행인 김재원
발행처 김해연구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
ISBN : 979-11-991749-3-1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